



東京文化発信プロジェクト

F/T11 FESTIVAL/TOKYO

페스티벌/도쿄

문의

페스티벌/도쿄 실행위원회 사무국

〒170-0001 Tokyo, Toshima, Nishisugamo 4-9-1, Nishisugamo Art Factory
NPO Art Network Japan

아시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이승효

Tel: 03-5961-5202 Fax: 03-5961-5207 E-mail: festivaltokyo-asia1@anj.or.jp

페스티벌 개요

명칭	페스티벌/도쿄 11 Festival/Tokyo 11	
기간/장소	2011년 9월 16일(금)~11월 13일(일) 도립 유메노시마(夢の島) 공원 내 다목적 콜로세움 토요스(豊洲)공원 서측 야외특설공연장 세이부(西武)이케부쿠로(池袋)본점 4층 마츠리 광장 니시스가모 아트 팩토리 씨어터 그린 아울스팟(Owlspot) 자유가쿠엔 묘우니치칸(自由学園明日館) 사이노쿠니(彩の国) 사이타마예술극장	
프로그램	F/T 주최	13 작품
	F/T 공모프로그램	11 작품
	F/T 참가작품	6 작품
	F/T 제휴사업	1 프로그램
주최	페스티벌/도쿄 실행위원회 도쿄도, 토시마구, 도쿄문화발신프로젝트실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 재단법인 토시마 미래문화재단, NPO 법인 아트네트워크 재팬	
공동주최	사단법인 국제연극협회 (ITI/UNESCO) 일본 센터	
협찬	(주) 아사히맥주, (주) 시세이도	
조성	재단법인 아사히맥주 예술문화재단	
후원	외무성, 사단법인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	
특별협력	세이부 이케부쿠로 본점, 토부백화점 이케부쿠로점, 선샤인 시티 프린스 호텔, 호텔 메트로폴리탄 도쿄, (주) Chacott	
협력	도쿄상공회의소 토시마지부, 토시마구 마을연합회, 토시마구 관광협회, 사단법인 토시마산업협회, 사단법인 토시마법인회	
선전협력	(주) 포스터해리스 컴퍼니, 유한회사 네뷰라엑스트라서포트(공모)	

2011년도 문화청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개최취지

일본을 덮친 미증유의 대참사, 동일본대지진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진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피해자의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복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페스티벌/도쿄>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되는 문화 창조를 지향하는 도쿄도 및 도쿄문화발신프로젝트실(공익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 예술문화에 의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마구 및 공익재단법인 도시마미래문화재단, 그리고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아트 네트워크 재팬이 주최단체가 되어, 올해 9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46일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2009년 3월의 제1회(F/T09봄), 동년 10~12월의 제2회(F/T09가을), 2010년 11월의 제3회(F/T10)에서는 세계 최선단의 라인업으로 주목받았고, 국내외로부터 도쿄와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예술제라는 평가를 얻으며 정착해 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장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4회에서는 지금까지 창설기에서 쌓아온 실적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선도하는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3회의 페스티벌에서는 지속적으로, 무대예술이라는 “지금, 이곳”의 미디어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힘과 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그것에 응답하는 많은 작품을 상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공연장이었던 도쿄예술극장의 보수공사와 맞물려, 기존극장이외의 장소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다수 전개합니다. 연극과 도시, 연극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한번 더 질문하면서, 우리들이 세계에 자랑하는 국제도시 도쿄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 재발견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무대예술의 창조와 대화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 아시아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공모프로그램>의 대상지역을 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 전역으로부터 모인 젊은 아티스트의 작품에 대해, <F/T 어워드>를 수여하는 새로운 시도에도 착수하여, 아시아로부터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해, 재해복구의 씨앗이 될 새로운 상상력을 탄생시킴으로써, 국제도시 도쿄로부터 다시 한번 세계로, 도쿄의 창조성을 발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스티벌/도쿄 주최자 일동

도쿄문화발신프로젝트(Tokyo Culture Creation Project)란?

도쿄문화발신프로젝트는 세계의 주요도시와 경쟁하는 예술문화의 창조 및 발신, 문화예술을 통한 어린이들의 육성, 다양한 지역의 문화거점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도쿄도 및 공익재단법인 도쿄도역사문화재단이 예술문화단체 및, 아트 NPO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2008년에 시작되어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극, 음악, 전통예술, 미술 등 여러 분야의 이벤트와 페스티벌, 도시내에서 시민과 아티스트가 협동하는 아트 프로그램, 도시와 예술을 연결하는 인재의 육성사업, 어린이 대상의 체험형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문화기반, 선진거대도시로서의 활력과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쿄의 매력을 창조 및 발신함으로써, 세계 속 도쿄 문화의 현재를 확립함과 동시에, 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의 여러 도시들과의 국제문화교류 거점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F/T11 컨셉트

우리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생각되었던 일상이 단절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 이후로, 우리들의 세계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에 뒤덮혀 있다. 상실감과 허무함, 분노와 불안 속에서 우리들이 이 현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우리들은 지금 "사는 것" 자체로도 크게 부하가 걸리는 지역과 시대에 있다. 길고 아름다운 일상이라는 꿈속으로부터 억지로 깨워진 우리들은,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은 우리들에게 판단을 요구한다. 여기에 머무를지, 피난할지. 어떤 정보를 믿을지, 의심할지. 이 물을 마셔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공연을 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발언을 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되는 지금, 우리들은 판단을 요구받는다. 그 판단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를 크게 좌우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매일 이러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비상사태가 우리들의 일상을 침식하게 되고, 어쩌면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한 비현실적 현실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이라는 장, 도쿄라는 도시에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연극이라는 매개를 통해 새로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롭게 얻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솔직히, 모르겠다는 제로의 지점으로부터 이번 F/T11을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가 일상을 뒤덮고, 현실이 허구를 초월해 버릴 때, 우리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힘든 수의 생명과 재산, 도시와 풍경이 사라지고, 그것들을 둘러싼 이미지와 언어가 범람한 후에, 우리들은 무엇을 표상하는 것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전제조건으로 용인해 왔던 정치와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를 믿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우리들은 어떻게 새로운 사회의 모델과 공동체의 존재방식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불가능한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럼에도 가능한 작은 저항의 집적에 의해, 우리들은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이번 F/T는 앞으로 긴 세월에 걸쳐 우리들이 짊어져야 하는 이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든 다시 붙잡고, 그곳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질문을 둘러싼 사고와 실천을 쌓아가는 작업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분단된 것을 천천히 다시 연결하여, 미래에 접속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울만큼 긴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 틀림없다. F/T11은 이러한 물음에, 이 현실을 공유하는 아티스트와 스태프, 그리고 관객 모두와 함께, 단지 우직하게 마주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의 계획대로 F/T11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식으로 연극과 극장의 외부로 나감으로써 도시와 연극, 연극과 사회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이 신작이므로, 지진 이후의 긴급한 질문이 깊게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의 풍경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지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이상, 도시와 마주하는 연극 또한 이 "거대한 이야기"와 대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F/T11은 극장이라는 하드웨어로부터 물리적으로 탈출함으로써, 그 장소 고유의 경관과 사회적/역사적 문맥으로부터 구상된 야외극 3작품으로 막을 올린다. 오프닝 작품을 맡은 아메야 노리미즈(飴屋法水)와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글로부터 각각 자유롭게 발상을 한 후, "유메노시마(夢の島)"라는

특이한 장소에서 지면과 천공, 자연과 인공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1000명 이상의 관객들을 공진시키는 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급진적인 방법으로 연극의 임계점에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르네 플레쉬는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에서 고안된 야외극을 도쿄 토요스(豊洲)의 공간에 설치하여, 도시와 교외의 풍경을 비평적으로 다루며 현대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야외극의 선봉 이신하(維新派)는 20년만의 도쿄 야외공연을 백화점의 옥상에서 감행함으로써, 21세기의 도시, 도쿄 이케부쿠로의 풍경화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러한 세 야외극은 도시의 드라마트루기를 더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리얼리티를 반영해 낼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일상으로부터 태어난 동시대의 표현은, 폭력적으로 절단된 일상을 앞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시에 편재하는 언어와 신체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왔던 미야자와 아키오(宮沢章夫)는, 1986년과 2011년이라는 두 시간축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내어, 시대의 집적과 단절을 무대화한다. 또한 독특한 언어-신체 감각으로 새로운 경지를 모색하고 있는 카미사도 유다이(神里雄大)도,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불가능한 수수께끼의 물체를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지진 이후의 강한 위화감과 마주한다. 한편 지금까지 인터넷-오타쿠 문화로부터 무한히 생성되는 창조물을 현대미술로서 제시해 온 카오스 라운지는, 그 성지 아키하바라(秋葉原)에 캐릭터와 오타쿠가 집결하는 연극적인 장을 만들고, 지진 이후의 일본문화 비평을 시도한다. 이러한 연극이라는 허구의 프레임이 과연 지진 이후에 얼마나 유효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야말로, 지진 이후의 예술가의 태도로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많은 탈연극적 기획을 전개해 온 타카야마 아키라(高山 明)는 이번에 "국민투표"를 연극 프로젝트로서 제시하고, 현실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하여 현실에의 개입, 변혁을 시도한다. 이미 현실이 허구를 뛰어 넘어 버린 이상, 연극도 허구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작용하는 새로운 운동으로의 진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댄스에서는 어떨까? F/T11에서는 두 개의 재상연, 재창조 작품을 통해, "댄스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마주한다. 댄스의 혁명가 제롬 벨은 일본인 출연자 26명과 함께 대표작의 일본 버전을 창작하여, 글로벌 시대의 몸짓과 신체에 비평적 그리고 유머러스한 시선을 던진다. 또한 지금까지도 중력과 공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는 신체를 모색해 왔던 시라이 츠요시(白井剛)는 이번에, 신체와 소리, 움직임과 정지를 통해 치밀하게 "정물화"를 구성하여, 댄스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시도를 계속한다.

F/T11의 새로운 전개로는, 작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공모프로그램이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아시아 지역 공통의 플랫폼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내 70,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80, 총 150건의 응모작품으로부터 선정된 11단체는 어떤 것도 각 지역의 동시대 현실로부터 자생해 온 독특한 시점과 기법을 갖고 있다.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기반한 신선한 제안은, 이번에 신설된 F/T어워드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아시아로부터 다수의 아티스트와 비평가가 모여, 아시아 컨템포러리의 현재 위치를 공유하고 미래에 연결하는, 밀도있는 3주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F/T의 중심적인 광장이었던 F/T스테이션은, 올해에는 고정된 장소가 아닌 도시 안으로 확산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페스티벌을 즐기고 깊이있게 만들기 위한 기능을 도시의 기존 장소 및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F/T레스토랑> <F/T스테이> <F/T살롱>을 제안한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도시의 이공간 속에서 편재되는 F/T고유의 시간과 타자와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지진 이후의 특별기획으로서, <“빈 공간”에서의 낭독회>를 릴레이 개최한다. 지금까지 F/T에 참가한 아티스트들의 참가와 협력으로, 하룻밤 1회 한정 낭독회가 펼쳐진다. 아티스트 자신이 고르고 연출한 "말"의 힘이, 빈 공간을 채울 때, 우리들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그곳에서 미래를 향해 움트는 것들과의 연대를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 울리는 목소리는 지진 피해지를 향해, 인터넷 중계될 예정이다.

역사의 큰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그 한가운데에 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다시 붙잡기 위해, 지금 우리들의 상상력이 시험되고 있다.

F/T 프로그램 디렉터
소마 치아키 相馬千秋

F/T11 오프닝 작품 미야자와켄지/유메노시마에서

“지면(地面)”

구성/연출 : 아메야 노리미즈

“나’라는 현상”

구성/연출 : 로메오 카스텔루치

9월 16일 (금) - 9월 17일 (토)

유메노시마 다목적 콜로세움



/ 작품설명

F/T의 단골 아티스트 로메오 카스텔루치와 아메야 노리미즈가 첫 더블 스테이지 작품에 도전한다. 미야자와 켄지의 텍스트로부터 영감을 얻어, 각각의 신작을 발표. 두 재능있는 아티스트가 미야자와 켄지의 세계를 매개로 1000명의 관객을 동시에 체험하게 만드는 페스티벌 도교의 오프닝 작품.

아메야 노리미즈와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신작 2 작품 상연

<전학생><4.48 싸이코시스><나의 모습>으로 일본 연극사에 부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메야 노리미즈. <Hey Girl!><신곡 3 부작>으로 일본의 관객들에게 선명한 잔상을 남긴 로메오 카스텔루치. 페스티벌의 단골 아티스트이며, 동세대이기도 한 두

사람은 이번에 F/T 로부터 위촉을 받고, 동일 공간, 시간, 관객을 공유하는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창조에 도전한다. 각 작품의 연출은 각자가 담당하지만, 그 창작의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야자와 켄지의 세계를 매개로 서로 자극하며 영향을 주고 받아, 결국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미야자와 켄지를 매개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심상

이번의 위촉작품은 2 개의 조건이 아티스트에 제시되었다. 첫째는 미야자와 켄지의 텍스트로부터 자유롭게 발상하여 무대를 만들것. 처음으로 미야자와 켄지의 글과 접한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다수의 우화와 시편 중에서 <봄과 수라>를 선택했다. 타이틀이 된 <'나'라는 현상>은, 시집 <봄과 수라>의 앞 부분에 있는 한 구절이다. 한편, 어린 시절부터 미야자와 켄지의 작품과 가깝게 지냈던 아메야 노리미즈는, 그 작품세계에 접속하여 물질과 생명을 둘러싼 사색을 펼쳐보일 것이다.

미야자와 켄지의 세계에서는 사람과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 또한 구름과 바람 등의 자연현상, 별과 태양, 대지와 같은 천체까지, 삼라만상이 동일하게 교감한다. 그곳에는 미야자와 자신이 갈등했던 인간존재의 모순과 무상함에 대한 고뇌가 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 전부를 둘러싸는 자연과 우주와의 대화가 탄생된다. 미야자와의 세계관은, 그의 죽음으로부터 약 80 년 후를 살고 있는 두 연출가의 손에 의해 어떻게 이어져, 현재 우리들의 심상을 반영하게 될까.

<유메노시마(꿈의섬)>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또 하나의 조건은, 극장 이외의 장소에서 상연할 것. 지진 재해 이후, 아메야 노리미즈의 제안에 의해 선택된 것은 유메노시마. 이는 종전후부터 고도성장기에 걸쳐, 도쿄에서 발생한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만들어진 토지이다. 현재도 풀가동되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소각장의 열을 이용한 식물원과 스포츠 시설도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메노시마의 다목적 콜로세움이라는 직경 약 120 미터의 거대한 원형광장의 360 도 전면을 사용한다. 인공적인 자연이 발하는 부자연스러울정도의 아름다움 속에서, 카스텔루치와 아메야의 의해 어떤 환영이 만들어질까. 미야자와 켄지의 글을 매개로, 수목, 바람, 하늘, 별, 그리고 천명을 넘는 관객들의 심신이, 유메노시마의 모순적인 자기장속에 울리게 된다.

미야자와 켄지(원작)

1896 년, 이와테현 하마키시 출생. 1924 년, 시집<봄과 수라>, 동화집 <주문이 많은 음식점> 발표. 대표작으로 <은하철도의 밤>(1934 년), <비에도 지지 않고>(1931 년), <바람의 마타사부로>(1934 년) 등.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힘을 쏟았으나, 1933 년, 37 세의 나이에 급성 폐렴으로 영면.

/ 프로필

아메야 노리미즈

연출가, 미술가



1961년 출생. 78년, 언더그라운드 연극의 중심적인 존재였던 카라 쥬로의 상황극장에 참가하여, 음향을 담당. 84년 도쿄 그랑기노르를 결성하여 컬트적인 인기를 얻음. 87년에는 M.M.M를 세우면서 메카닉한 장치와 신체의 융합에 의한 『스킨/SKIN』 시리즈에서 사이버 펑크적인 무대표현을 시작함.

90년대에는 연극으로부터 미술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도, 인간의 신체에 대해 일관성있게 주목하여, 수혈, 인공수정, 감염증, 품질개량, 화학식품, 성차별 등을 테마로 다루어, TECHNOCRAT 라는 이름의 콜라보레이션 유닛의 일원으로서 작품을 제작.

95년, 자신의 정액(유전정보)를 타국에서 판매하는 「퍼블릭 자멘」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지만, 그 후 미술활동을 중지. 같은 해, 도쿄 히가시나카노에 「동물당」이라는 가게를 개점하여, 다양한 생물의 사육과 판매를 시작함. 97년에 출판된 「당신은 동물과 생활할 수 있을까?」는 다양한 희귀동물의 특징과 사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아메야 노리미즈가 수많은 동물과 생활을 함께하는 중에 생각한 인간과 동물에 대한 여러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05년에는 그때까지 중지했던 미술활동을 「방군토」전으로 재개. 「소실」을 테마로하는 이 전람회의 메인이 되었던 것은, 아메야 자신이 갇혀있던 가로세로 1.8미터의 하얀 상자. 최소한의 공기만이 허용되는 상자 안의 어두움에 침전하는 아메야와 외부인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오직 노크. 24일에 걸친 전시기간 중, 아메야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과 유동식을 섭취하며 상자안에서 생활하여, 타자에게 보이지 않게 된 스스로의 존재를 작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 두었다.

07년에는 시즈오카 무대예술 센터 「SPAC 가을 시즌 2007」에서, 연출가로서 연극활동을 재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즈오카현의 현역 여고생 18명을 기용한 『전학생/転校生』으로 호평을 얻음. 같은 작품으로 09년 3월, 시즈오카 및 페스티벌/도쿄 09 봄에서 재상연. 09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도쿄 하라주쿠의 리틀모아 지하에서, 타다 준노스케 작 『3명 있음!』을 연출하였고, 페스티벌/도쿄 09 가을에서는 야마카와 후유키와 공동작업으로 사라 케인의 유작 『4.48 사이코시스』를 연출하여 화제를 불러옴. 2000년 1월에는 쿠로다 이쿠요와의 협업으로 <시어터 토라무>에서 『소코바케쓰노소코』를 연출. 3월의 도쿄예술견본시(TPAM), 7월의 아즈마바시 댄스 크로싱 2010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로메오 카스텔루치

연출가, 미술가



1960년 체세나 출생. 볼로냐의 미술학교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배운 후, 81년에 클라우디아 카스텔루치(작가, 누나), 키아라 구이디(드라마터그)에 함께, 극단 소치에타스 라파엘로 산치오(Societas Raffaello Sanzio)를 결성. (라파엘로 산치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 이탈리아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화가로서, 성모의 화가라고도 불리는 라파엘로의 이름이다). 90년대에는 역사와 비극을 주제로 한 작품군 *행릿*(92년), *오레스테이아*(95년), *줄리어스 시저*(97년), *창세기*(99년) 등으로 그 이름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제작한 *트래제디아 엔도고니디아* 시리즈에서는 유럽의 10개 도시(체세나, 아비뇽, 베를린, 브뤼셀, 베르겐, 파리, 로마, 스트라스부르, 런던, 마르세이유, 마지막으로 다시 체세나)에서 저명한 극장과 페스티벌과의 공동제작으로 11개의 에피소드를 상연했다.

아비뇽 연극제에도 수차례 참가하였고, 08년에는 어소시에이트 아티스트로서, 단테의 "신곡"을 바탕으로 한 삼부작을 일거에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뒀다. 그 작품은 페스티벌/도교를 포함한 세계의 각 도시를 순회하였고, '르몽드'지에서는 <2000년대, 세계에 영감을 준 10개의 문화적 사건>에 선정되는 등, 세계 연극계의 화제가 되었다.

/ 캐스트 / 스태프

“지면”

구성/연출 : 아메야 노리미즈

출연 : 미정

“ ‘나’라는 현상 ”

구성/연출 : 로메오 카스텔루치 Romeo Castellucci

음악 : 스콧 기븐스 Scott Gibbons

연출조수 : 실비아 코스타 Silvia Costa

출연 : 미정

작품 공동 스태프

프로듀서 : 마에다 케이조 前田圭蔵

기술감독 : 토라카와 에이지 寅川英司 + 카라스야 鴉屋

무대감독 : 나카하라 카즈히코 中原和彦(로메오), 다나카 츠바사 田中翼(아메야)

미술협조 : 노리미네 마사히로 乘峯雅寛

조명협조 : 사사키 마키코 佐々木真喜子(썬 Factor)

음향협조 : 아이카와 아키라 相川晶(Soundways)

주최/제작 : 페스티벌/도쿄

후원 : 이탈리아 대사관

협력 : 유메노시마 열대식물관

홍보협력 : 이탈리아 문화회관



/ 공연정보

공연장 : 유메노시마 공원 다목적 콜로세움

지하철 유락초선/JR 케이요선/린카이선 신키바(新木場)역 하차 도보 12분

일시

9월 16일(금)	9월 17일(토)
19:30	19:30

*우천시 결행. 태풍시 연기 혹은 취소

시간: 90분 (예정)

/ 티켓

자유석

예매 ¥4,500 (당일: +¥500)

학생 ¥3,000

고등학생 이하 ¥1,000

“무방비영화도시 - 루르지방 3 부작/제 2 부”

작/연출 : 르네 폴레쉬(독일)

무대미술 : 베르트 노이만(독일)

9 월 21 일 (수) - 9 월 25 일 (일)

토요스(豊洲)공원 서쪽 야외특설공연장



© Thomas Aurin

/ 작품설명

루르 3 부작

독일 서부에 있는 루르지방은 탄광지역과 중공업지대로 19 세기 후반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쳤지만, 1970년대부터 석탄수요의 감소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서독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독일의 작가이자 연출가인 르네 폴레쉬는 산업사회의 종말과 구조변화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이 지역에,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루르지방 3 부작>을 제작, 발표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상영되는 제 2 부의 제작에 있어서 폴레쉬가 영감을 얻은 것은,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를 촬영한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전쟁 3 부작 (1945년 <무방비도시>, 1946년 <전화의 저편>, 1948년 <독일영년>). 폴레쉬는 전쟁에 의한 파괴와 공포, 전쟁 이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을 응시하는 촬영수법으로 세계에 충격을 안긴 로셀리니의 네오리얼리즘을 모티브로, 과거 영화의 대사와 신을 다수 인용하여 현실과 허구, 역사와 개인, 도시와 지방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이 공연에서는 토요스의 거대한 공터에 영화촬영소가 출현. 그 곳에 5 명의 남녀 출연자가 연기하는 영화촬영 스태프가 도착하여, 촬영을 시작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촬영되는 영화의 등장인물, 이야기, 장면은 어딘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데... 이 곳은 옛날 루르지방의 공업지대였던 공터인 것일까? 로마의 거대촬영장 치네치타인걸까? 대체 출연자는 무엇을 촬영하고 있는 것일까?

영화와 연극의 경계에서 기묘한 픽션의 시간이 펼쳐진다.

소리치는 독백, 반복되는 놀이 - 그러나 그곳에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사색

거대도시에서의 생활, 21 세기의 노동, 자본주의가 낳은 히스테리... 현대인의 생활을 테마로 연극의 임계점에 도전하는 르네 플레쉬. 그가 작/연출을 맡은 작품에서는 아카데믹한 이론과 텔레비전의 오락프로 따위의 인용이 뒤섞여,ダイ나믹하고 강렬한 그리고 때로는 히스테릭하다고도 불릴 법한 세계관을 만들어 간다.

아웃소싱, 글로벌화, 네트워크 등, 자본주의사회를 상징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와 미디어에 의해 표상되는 사회의 모순과 딜레마를 다뤄가는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과대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현대인들이다. 그들은 하찮은 농담을 말하고, 때로는 격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실체를 움켜쥐고 확인하려 하지만, 그 “인생”과 “이야기”는 언제나 발견되지 않고,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멜 수 밖에 없게 된다.

때로는 야단스러운 희극과 같이 맹렬한 스피드로 전개되는 스펙타클함에 압도되며, 관객들은 현실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플레쉬의 통절한 분노와 깊은 사색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도시와 교외를 연결하는 가설극장 - 베르트 노이만의 무대미술

<무방비영화도시>의 무대미술을 맡은 베르트 노이만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무대미술가 중 한 사람이다. <루르지방 3 부작>의 무대미술은, 노이만이 2000 년의 하노버 엑스포를 위해 제작한 <롤링 로드쇼(Rolling Road Show)>의 세트를 발전시킨 것이다. 텐트, 컨테이너, 캠핑카 등으로 이루어진 <롤링 로드쇼>는 이동형 컨테이너 극장으로, 도시의 중심과 교외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서 실시되었다. 극장이 있을법하지 않은 장소에도 일시적으로 공공의 광장을 만들어내는 이 시도는, 상연에 관계되는 출연자와 스태프, 그곳을 방문하는 관객과 그 토지의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 내었다.

도쿄 공연의 공연장은 토요스의 광대한 공터. 도쿄의 빌딩군을 배경으로, 야외에서만 가능한 베르트 노이만의 대담한 공간설계가 극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다.

/ 프로필

르네 폴레쉬 René Pollesch

연출가



1962년 독일, 헷센주 프리드베르크 출생. 기센대학 응용연극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켄타르시에서 스스로 극단을 설립하고, 동시에 프랑크푸르트 TAT(Theater am Turm)극장에서 극작/연출 활동을 시작함.

96년 런던의 로얄 코트 극장, 97년 슈트트가르트, 아카데미아 슈로스 솔리튜드에서 레지던스 아티스트. 99년 루체른 극장, 2000년 함부르크 샤우스필하우스의 레지던스 극작가. 01~07년, 베를린의 폴크스뷰네 부속 프라더 극장의 예술감독을 역임. 02년 베를린 연극제에 초청되어, 같은 해 <테아타 호이테>에 의해 연간 최우수극작가에

선정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시립극장, 빈 함부르크 극장, 함부르크 샤우슈필하우스, 베를린의 폴크스뷰네 등 많은 극장에서 자신의 희곡을 연출하여 상연하고 있음

베르트 노이만

무대미술가



© Thomas Aurin

1960년 독일, 막데부르크 출생 후 동베를린에서 성장. 베를린 미술대학을 졸업 후, 프리랜서로 활동. 92년에 베를린, 폴크스뷰네의 무대미술감독에 취임. 프랑크 카스트로프, 알랑 플라텔, 요한 시몬스, 르네 폴레쉬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연출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작업하고 있음.

무대미술가 / 의상디자이너로서 빈 시로부터 카인츠 훈장, 베를린 신문의 평론가상, 프로이센 해외상사재단에 의한 베를린연극상등, 많은 수상경력이 있음. 연극잡지 <테아타 호이테>에서는 여러 번 연간 최우수 무대미술가에 선택되었음. 2009년부터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의 회원임.

/ 캐스트 / 스태프

작/연출 : 르네 폴레쉬 René Pollesch
무대미술 : 베르트 노이만 Bert Neumann
출연 : 잉가 부쉬 Inga Busch, 크리스틴 그로스 Christine Groß,
카트린 슈트리벡 Catrin Striebeck, 마르틴 라베렌츠 Martin Labrenz,
트리스탄 뤼터 Trystan Pütter
의상 : 니나 폰 메호 Nina von Mechow
드라마투르그 : 엔네 키뇨네스 Aenne Quinones
기술감독 : 시몬 베링거 Simon Behringer
무대감독 : 프랑크 마이스너 Frank Meißner
연출부 : 세렌 엘체 Sören Elze, 플로리안 클링그너 Florian Klingner,
치체로 헨리케-마르크스 Cicero Henrigue-Marques
조명 : 톨스텐 케니치 Torsten Koenig, 베아트리스 소머-위케라트
Beatrice Sommer-Wickerath, 다비드 윈터 David Winter
음향 : 크리스토퍼 폰 나터지우스 Christopher von Nathusius,
윌리엄 민케 William Minke, 안나 크렘서 Anna Kremser
영상 : 옌스 크룰 Jens Crull, 하겐 술체 Hagen Schulze,
우테 샬 Ute Schall, 안드레아스 다이널트 Andreas Deinert
의상관리 : 야나 코네츠키 Jana Konetzki
프롬프터 : 티나 프후르 Tina Pfurr
조연출 : 안네그레트 슐레겔 Annegret Schlegel
프로덕션 스태프 : 야나 베스카우 Jana Baskau
제작 : 폴크스뷰네, 베를린 Volksbühne am Rosa-Luxemburg-Platz, Berlin
공동제작 : 링그로크슈펜 뮐하임 Ringlokschuppen Mülheim,
로테르담 시립극장 Rotterdamse Schouwburg,
유럽문화도시 RUHR 2010 European Cultural Capital Ruhr.2010

일본 공연 크레딧

자막/번역 : 하기와라-발렌토비츠 켄 萩原 Wallentowitz 健
주최 : 페스티벌 도쿄
특별협력 : 독일 대사관, 도쿄 독일문화센터
협력 : 공익재단법인 코토구 (江東区) 문화커뮤니티 재단



/ 공연 정보

장소 : 토요스(豊洲)공원 서쪽 야외 특설 공연장

일시

9월 21일 (수)	9월 22일 (목)	9월 23일 (금)	9월 24일 (토)	9월 25일 (일)
19:30	19:30*	18:00	18:00	18:00

*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있음

상연 시간 : 90 분

/ 티켓 정보

자유석 (입장번호 포함)

예매 ¥5,000 (당일: +¥500)

학생 ¥3,000 고등학생 이하 ¥1,000

“풍경화 - 도쿄, 이케부쿠로”

이신하(維新派)

구성 : 마츠모토 유키치(松本雄吉)

10 월 7 일(금) - 10 월 16 일(일)

세이부 이케부쿠로본점

4 층 마츠리 광장



©Matthew G Johnson

/ 작품설명

배우, 관객이 이케부쿠로의 풍경안에 녹아드는 - 새로운 야외극의 탄생

비와(琵琶)호수 호반에 수상무대를 만들어낸 <호흡기계> (2009 년/아사히무대예술상 아티스트상), 오카야마현 이누시마의 정동소 터에서 통나무 4000 개를 사용해 야외극장을 만든 <타이완의 젓빛 소가 기지개를 켜올 때> 등, 이신하의 무대는 미술, 음악, 춤, 배우의 대사, 그 전체 요소를 그 토지의 정경과 공기에 녹여내어 “그 장소, 그 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낸다.

F/T 에는 09 년에 <로지시킴>로 첫 참가 후, 그 작품은 물론, 도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야타이무라”에서도 화제를 불러, 공연장이었던 니시스가모아트팩토리에는 관객과 지역주민 4000 여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신하의 대명사인 야외공연을, 20 여년만에 드디어 도쿄에서 실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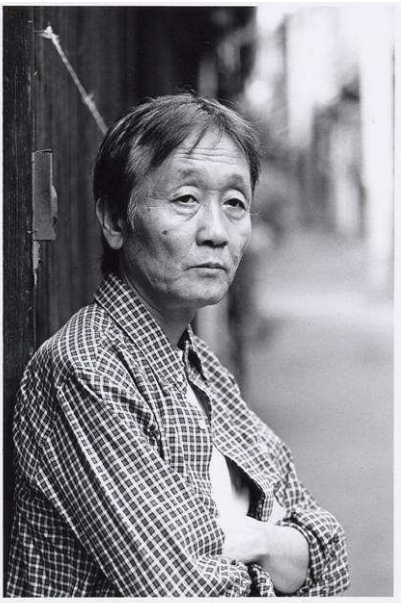
게다가 지금까지의 특색이었던 대규모의 미술과 무대장치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배우의 신체를 중심으로 관객과 함께 풍경에 깊이 관여하는 작품을 지향한다.

본공연과 같은 컨셉트로 올해 9월에 상연되는 오카야마현 이누시마 버전에서는, 간조 시에 나타나는 해발 0m 이하의 해저가 무대가 된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연출가 마츠모토 유키치가 도쿄의 “풍경”을 나타내는 공연장으로 고른 곳은 이케부쿠로의 빌딩의 옥상. 오랜 세월을 걸쳐 이케부쿠로의 거리와 문화의 중심으로 존재해 온 세이부백화점 본점의 특별협력으로, 세이부 본관과 별관의 사이에 위치한 야외광장에서 상연이 실현되었다. 공연장의 밑을 달리는 철도의 소리, 건너편으로 보이는 신주쿠의 고층빌딩군… 빛, 소리, 정경, 배우, 모든 요소로부터, 관객 한명 한명이 새로운 이케부쿠로=도시의 풍경을 발견하게 되는 야외극이 될 것이다.

/ 프로필

마츠모토 유키치 松本雄吉

연출



1946년 쿠마모토 현 출생. 이신하 대표

오사카교육대학에서 미술을 전공 후 1970년 이신하를 결성. 74년 이후의 모든 작품에서 각본과 연출을 맡음. 91년, 도쿄 시오도메 컨테이너야드에서 상연된 거대 야외공연 <소년가이少年街>부터 독자적인 스타일 “장장☆오페라”를 확립. 야외를 고집하며, 관객과 함께 여행하는 <표류> 시리즈를 기획하여 나라, 오카야마 등에서 공연을 실시. 2001년 유럽 투어, 05년 남미투어, 09년 오세아니아 투어, 11년 싱가포르 공연 등 해외로부터도 다수 초청됨.

수상이력

09년 <호흡기계> 아사히무대예술상 아티스트상, 예술선장 문부과학대신상

05년 <키톤> 요미우리연극대상 연출가부문 우수상

02년 <칸카라> 아사히 무대예술상

99년 <미즈마치> 오사카 무대예술상

이신하(維新派)

1970년에 오사카에서 결성된 이신하는 대표인 마츠모토 유키치를 중심으로 “연극”이라는 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활동을 계속해왔다. 야외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건축하는 극장, 영화의 세트장과 같은 리얼한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공간까지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압도적인 미술, “장장☆오페라”로 명명한 독자적인 대사 기법. 오리지널 음악... 모든 요소를 디렉션하고, 연출을 맡는 마츠모토 유키치에 의해 연극의 종합예술성을 체현하는 무대가 만들어진다.

“장장☆오페라”의 “장장”이란 이신하의 활동거점인 오사카의 장장마을에서 유래한다.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서방언의 억양을 살려, 5 박자/7 박자 등의 변박자를 사용하는 리듬으로 만들어지는 대사는, 기주 방언, 오키나와어 등 일본 각지의 방언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사용하여, “이신하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혼성언어가 만들어졌다.

공터에 거대한 극장을 만드는 현장에는 영화, 미술, 음악 등 여러 장르의 사람이 모여, 축제와 같은 이공간을 만들어 내지만, 공연 후에는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철수하는 것이 그들의 특색이다.

/ 캐스트 / 스태프

구성 : 마츠모토 유키치 松本雄吉

연출 : 이신하 維新派

음악 : 사토 타케노리 佐藤武紀

음향 : 타지카 미츠루 田鹿充

조명 : 요시모토 유키코 吉本有輝子

무대감독 : 오타 카즈시 大田和司

홍보미술 : 아즈카 가쿠 東学(188)

홍보사진 : 이노우에 요시카즈 井上嘉和

연출부 : 야마사키 카나코 山崎佳奈子, 시미즈 츠바사 清水翼

제작 : 이신하

공동제작 : 페스티벌/도쿄

주최 : 페스티벌/도쿄

특별협력 : 세이부백화점 이케부쿠로본점

/ 공연정보

장소 : 세이부 이쿠부쿠로 본점 4층 마츠리 광장

일정

10/7 (금)	10/ 8 (토)	10/ 9 (일)	10/ 10 일(월)	10/ 11 일(화)	10/ 12 (수)	10/ 13 (목)
19:00	17:00	17:00	17:00	19:00	19:00	-
10/ 14 (금)	10/ 15 (토)	10/ 16 (일)				
19:00	17:00	17:00				

*우천시 결행, 태풍시 연기 혹은 중지

상연시간 : 100 분(휴식없음) (예정)

/ 티켓 정보

자유석 (입장번호 포함)

예매 ¥5,000 (당일: +¥500)

“Referendum - 국민투표 프로젝트”

Port B

구성/연출 : 타카야마 아키라 高山明

10 월 11 일 (화) - 11 월 11 일 (금)

인터넷 & 도쿄 도내 각 장소(예정)



/ 작품설명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연극 프로젝트

현실의 도시, 사회의 기억과 풍경, 미디어 등을 인용하여 재구성하는 투어 퍼포먼스와 인스톨레이션으로 국내외로부터 큰 주목을 받는 PortB. F/T10 에서는 도시공간 안에 임의의 <피난소>를 설정하여, 인터넷으로부터 관객을 도시의 현실에 접속시키는 작품 <완전피난매뉴얼 도쿄판>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F/T09 가을에서 발표한 <개실도시 도쿄>는 2011 년 5~6 월의 <빈 예술주간>에 초청되어, 빈 중심부의 공원에서 240 명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등, 현지 스태프/캐스트와의 국제공동제작에 성공하여, 독일어권의 많은 비평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최근작들에서 타카야마 아키라는, 투어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관객이 “피난”의 움직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현대의 도시에 존재하는 마이너리티를 의식하고 개인과 공공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품을 전개해 왔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첫 신작발표의 장이 되는 F/T11 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내는 연극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또한 본 작품에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폐발전소가 된 스펜텐도르프 원전을 보유한 나라, 오스트리아의 빈 예술주간과 공동으로 제작함으로써, 국제적인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자적인 “국민투표”를 연극프로젝트로서 제시한다

본 작품은 “일본에 원전은 필요한가?”라는, 지금 누구와도 상관없다고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일본에서는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국민투표>를, 연극적인 프로젝트로 제시한다.

미증유의 대지진 이후,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원전시위, 토론회와 심포지엄, 문화인에 의한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원전”의 시비를 둘러싼 논쟁이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어디에 도달하는 것일까? 본 작품은 국민투표라는 형식을, 사람들의 의견들을 가시화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토론의 출발점이 되는 형식으로 제시함과 더불어, 현실에서도 실현가능한 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원전”에 찬성 혹은 반대의 양자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시점으로부터의 리서치/워크샵/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다.

현재 일본 사회구조를 대하는 연출가의 비판적인 시선은, 크고작은 여러가지 대화의 장을 만들어 냈고 동시에,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뒤흔드는 작품이 될 것이다.

/ 작품구성

제 1 부 - <국민투표>의 실현을 위한 매뉴얼 제작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모델의 오스트리아 츠벤텐도르프 원전이 국민투표에 의해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폐발전소가 된 사례를 참조하면서, ‘국민투표란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국민투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와 같은 테마에 대해 헌법학자와 법학자, 정치학자 등으로부터 강의를 받고, 그 기록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 웹 사이트에 정리한다.

제 2 부 - 매스미디어에는 도달하지 않는 목소리를 모으는 인터뷰

원전에 대하여 혹은 원전을 통해 보이는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다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소재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인터넷에 공개한다. 텔레비전과 신문, 서적, 인터넷 등에서 매일 접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닌,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목소리, 침묵을 강요당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귀를 닫고 있기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모으고자 한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와 만남을 통해 미래를 생각하는 제 2 부.

제 3 부 - <국민투표>와 <모임>

관객은 투어처럼 도내의 각 장소 및 웹사이트상에 설치된 투표소로 안내를 받아, <일본에 원전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Yes 또는 No 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함이 놓이는 곳은 원전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힌트가 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사자(死者)가 상기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사자의 목소리와 만나, 과거와 대화하는 제 3 부.

또한 매일 밤 각 투표소를 방문하여, 게스트와 함께 하는 투어식 퍼포먼스를 실시. 각 투표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은 Yes/No 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다.

제 4 부 : <개표>

개표된 <모두의 목소리>는 공개될 예정이지만, 개표결과에 공개방법과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모임>에서 매일 밤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 의사결정의 시스템은, 우리들 자신의 발밑에서부터 의논되어야만 한다.

/ 프로필

타카야마 아키라 高山明

연출가



1969년 출생, 2002년 그룹 Port B(포르토 비)를 결성. 연극을 전공하지 않은 연기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기존 연극의 틀을 뛰어넘는 전위적인 작품을 연달아 발표. F/T10에서는 도시공간 안에 임의의 <피난소>를 설정하여, 인터넷으로부터 관객을 도시의 현실에 접속시키는 작품 <완전피난매뉴얼 도교판>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한편, F/T09 가을에서 발표한 <개실도시도교>는 2011년 5~6월의 <빈 예술주간>에 초청되어, 빈 중심부의 공원에서 240명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등, 현지 스태프/캐스트와의

국제공동제작에 성공하여, 독일어권의 많은 비평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현실의 도시와 사회에 존재하는 기억과 풍경, 미디어 등을 인용하여 재구성하며 작품화하는 수법은, 「다가올」 현대 연극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도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페스티벌과 미술전에서도 큰 주목과 기대를 얻고 있음.

Port B (포르토 비)

02 년 도쿄에서 결성. 타카야마 아키라가 중심으로 키워온 연출 기법을 기본으로, 연극 이외의 활동에 종사하는 아티스트 및 장인들과 함께 연극적인 실험을 반복함. 「연극(적)인 텍스트」를 이용한 무대로는, 브레히트의 제 1 시집 「가정용설교집」을 소재로 한 「시어터 X·브레히트 연극제에서의 10 월 1 일/2 일 약 1 시간 20 분」 (03 년), 하이너 뮐러 작 「호라치 사람」 (05 년), 아이나 슈레프 「니체」, 엘프리데 엘리네크 「구름. 집.」 (07 년) 이 있음. 한편, 타카시마다이라에서 필드워크를 실시하여 단지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대에 올린 「Museum: Zero Hour ~ J.L 보르헤스와 도시의 기억」 (04 년), 스미다가와를 필드워크한 성과와 민요 「스미다가와」를 교차시킨 「Re:Re:Re:place ~스미다가와와 옛 스미다가와의 행방(불명)~」 (05 년) 은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짙은 연극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실제의 도시를 인스톨레이션화하는 “투어 퍼포먼스”를 기획. 「할머니들의 하라주쿠」로 불리는 스가모 지조도오리를 무대로 한 「일방통행길」 (06 년), 도쿄관광의 대명사 하토버스를 이용한 「도쿄/올림픽」 (07 년), 이케부쿠로 선샤인 60 의 주위를 5 인 1 개조의 참가자가 순회하는 「선샤인 62」 (08 년), 야마구치정보예술센터에서의 프로젝트 「야마구치 시영(市営).P.」 (08 년) 등은 각종 미디어에서 다뤄지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연극적 인스톨레이션”으로 칭해진 작품의 계보에는 구 도시마구립 중앙도서관에서의 「황무지」 (08 년), 구 서울역사를 사용한 「동서남북」 (08 년), 이바라키현 토리데시 이노단지의 「단지대도감」 (08 년) 등이 있어, 이것들은 현대미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목을 받았다.

어떤 활동에서도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밑바탕으로 「다가올 다음」 현대연극을 추구하고 있음.

웹사이트 : <http://protb.net>

/ 캐스트 / 스태프

구성, 연출 : 타카야마 아키라 高山明

영상 디렉터 : 겐 우민 玄宇民

내비게이터 : 이노마타 츠요시 猪股剛, 오토리 히데나가 鴻英良,
사이토 사이토 齊藤齋藤, 도카코

보조연출 : 다나카 사키 田中沙希

무대감독 : 시미즈 요시유키 清水義幸 (카폰타)

미술 : 에즈레 아카리 江連亜花里(카폰타)

기술감독 : 이노우에 타츠오 井上達夫

출연 : 리서치에 의해 결정

협조 : 리서치에 의해 결정

제작 : Festival/Tokyo, Port B

공동제작 : 빈 예술주간(예정)

조성 : 공익재단법인 세존(Saison)문화재단

주최 : 페스티벌/도쿄

/ 공연정보

공연장 : Online and at 10 polling stations around Tokyo

일정 : 10 월 11 일 일(화) - 11 월 11 일 (금)

/ 티켓 정보

미정. F/T 회수권 대상외

자세한 사항은 F/T 홈페이지에서 공지예정

“토탈 리빙 1986-2011”
유엔치 사이세이 지교우단
(유원지재생사업단)

작, 연출 : 미야자와 아키오 宮沢章夫

10월 14일 (금) - 10월 24일 (월)

니시스가모 아트팩토리



© Taisuke Koyama

/ 작품설명

지금, 우리들의, 도쿄 생활

80년대 중반에 이토 세이코, 타케나카 나오토 등과 함께 “라디칼 카지베리빈바 시스템”으로 연극활동을 시작한 이래, 극작/연출 활동을 축으로 소설, 에세이의 집필, 최근에는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야자와 아키오.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가 이끄는 유원지재생사업단이 드디어 F/T에 등장한다.

2000년 활동을 잠시 접었던 유원지재생사업단. 그러나 1년 후 일어난 “9.11” 세계 무역센터빌딩의 붕괴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망연히 그곳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몸’의 취약함”의 상징을 보게 된 미야자와는 젊은 배우, 아티스트와 함께 장기 워크숍을 거쳐 <도쿄 보디>(2003년)를 발표하였고, 무대위의 카메라맨과 촬영한 영상(=미디어)을 통해서만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는 무대를 제작하여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이듬해에 제작한 대표작 <도쿄/부재/햄릿>(05년)과, 현재의 창작스타일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최근작 <재패니즈 슬리핑/세계에서 가장 졸린 장소>까지, 미야자와는 다양한 연극적 기법을 시도하며, 도쿄라는 도시에 편재하는 “말”과 “몸”을 관찰해 왔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 미야자와는, 올해 2011년으로부터 25년전인 1986년을 상기한다. 25년전, 그것은 일본이 버블경제에 돌입하는 전야로 고도경제성장의 절정을 맞이하여 흥청거리던 시기임과 동시에, 멀리 소련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해이다.

1986년에 죄를 지은 남자가 형기를 마치고 25년 후의 2011년의 사회에 돌아오는데, 그곳에는 25년전과 같은 원전사고가 일어나 있다. 남자는 일을 찾아, 사고로 출입이 금지된 그 지역으로 향하는데...

미야자와는 2011년과 1986년의 두 해를 병렬로 배치하여, 시간과 공간이 단절되어 뒤틀린 연극 구조안에서 “지금”을 다시 다루고자 한다. 창작과정에서는, 전작 <재패니즈~>에서 사용한, “인터뷰로부터 창작한다”는 기법을 발전시켜, 배우가 있는 거리로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소재로 한다. 인터뷰를 수집한 출연자들은, 미야자와의 워크숍에 참가했던 젊은 배우진들. 그들에 의해 수집된 단편적인 발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쿄의 소리가 되어 관객들의 귀에 도달하고, 원전사고 하에서 계속되는 “지금”의 우리들의 생활을 비추게 될 것이다.

/ 프로필

미야자와 아키오 宮沢章夫

연출가



1956년 시즈오카현 출생. 90년, 작품별로 배우들을 모아 상영하는 스타일의 <유원지재생사업단>의 활동을 시작. <히미네>(92년)로 키시다쿠니오 희곡상 수상. 10년간 10여 편의 무대작품을 발표하고 2000년부터 3년간의 휴식기에 들어감. 2003년 희곡+영상+퍼포먼스의 협업 작품 <도쿄 보디>, 05년 <도쿄 / 부재 / 햄릿>을 각각 발표하여, 제 2기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을 개시. 이외에도 세타가야 퍼블릭시어터 현대 노(能)

시리즈 등 외부공연에서의 제작, 연출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함.

또한, 99 년에 아쿠다가와상 후보에도 오른 <서치엔진 시스템 크래쉬>등의 소설, 에세이, 평론 등의 집필활동과 와세다대학 문화구상학부 교수 등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14 세의 나라>, <부재>, <체흡의 전쟁>, <자본론도 읽기>, <80 년대 지하문화론 강의>, <생각하는 물, 그 외의 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등. 최신작으로 <밥 딜런 그레이티스트 히트 제 3 집>

수상이력

2010 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독서> 제 21 회 이토 세이 문학상 평론부문 수상

1992 년 <히미네> 키시다쿠니오 희곡상

스기모토 케이치 杉本佳一

작곡가



FilFla, FourColor, Minamo, Fonica 등의 사운드 프로젝트에서 활동. 스기모토의 작품은 뉴욕의 <12k>, <apestaartje>, 독일의 <TOM LAB>, 일본의 <HEADZ>등 국내외의 음악 레이블로부터 릴리스되었고, FourColor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한 <water mirror>가 영국 <THE WIRE>지 베스트 일렉트로니카 앨범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높다. 지금까지 유럽 각국과 아시아, 오스트렐리아, 북미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등 글로벌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수많은 영화/영상, 연극, 전시의 음악을 제작하고, 광고음악에도 참여하여 2004 년 칸영화제에서는 미야사키 아츠시 감독의 <Frontier>가 감독주간에서 수상하였다. 06 년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영화제에서는 독일인 감독 티모 카츠가 제작한 <Whirr>로 OST 상을 수상. 이 수상을 계기로 07 년 프랑스 영화음악작곡가협회 회원에 등록됨. 자신의 아티스트 활동과 별개로, 1999 년부터 음악 레이블 이벤트를 운영하여, 해외의 전자음악관련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야마모토 테츠야 山本哲也 (POTTO)

의상 디자이너



1974 년 효고현 출생. 97 년 문화복장학원 졸업. 2001 년 POTTO 를 설립. 02 년에 중고 인형을 해체하여 양복에 설치한 컬렉션을 발표. “자유로울 것, 기분좋게 생활할 것, D.I.Y”를 컨셉트로 활동을 계속하여 사람과 동물의 얼굴이 웃이 되는 등, 매번 독자적인 발상과 수법으로 컬렉션을 발표하고 있음. 04 년부터 도쿄컬렉션에서 발표. 07 년 에비스에 POTTO 를 오픈. 그 곳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생활하는 방법으로 제작,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유엔치 사이세이 지교우단(유원지재생사업단)

1990년 <유원지재생>이라는 작품으로, 작품별로 배우를 모아 상영하는 스타일의 <유원지재생사업단>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히미네>(92년)로 키시다쿠니오 희곡상을 수상. 10년간 10여편의 무대작품을 발표하고 2000년부터 3년간 휴식기에 들어감. 03년 <도쿄 보디>, 05년 <도쿄/부재/햄릿>을 상연, 이전까지의 스타일과는 상이한 창작을 시작함. 희곡+영상+퍼포먼스의 협업 작품이라는 형식 뿐만 아니라 작품을 발표하기까지 여러 번의 워크샵, 프리공연, 실험적인 작은 무대 등을 거쳐 본 공연에 이르는 창작과정을 가짐. 이러한 제2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활동이 2000년대 이후의 유원지재생사업단의 중심이 되었다. 06년에는 <돈키호테에 얽힌 인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모터사이클 돈키호테>와 세타가야 퍼블릭 시어터 현대 노(能) 시리즈 등 외부공연에도 참여함. 07년 <뉴타운 입구>를 거쳐, 2010년에 발표한 <재패니즈 슬리핑 - 세계에서 가장 졸린 장소>는 지금까지 ‘리딩공연+본공연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인프로그램 방식’을 추구한 유원지재생사업단의 제2기를 집대성한 작품이었다.

미야자와의 희곡과, 유원지 재생사업단의 특징은, 별다른 것 없는 대화에서 발생하는 언어의 어긋남과 반복을 웃음으로 포장함으로써 일상을 보다 리얼하게 묘사하고, 일상생활의 배후에서 꿈틀거리는 에로스와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드러내는 점이다. 그것은 기성의 극작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극적인 것에 의문을 품는 표현수단이기도 하여, 90년대의 연극신에서 이것은 연극에 의한 연극 비평으로 볼 수 있었다. 또, 다양한 출신의 배우들과 뮤지션, 만화가 등의 광범위한 출연자도, 장르를 뛰어넘어 연극을 측면에서 비평하고자 하는 미야자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유원지재생사업단은 지금도, 2000년대와 10년대, 시대를 거쳐 이동해 가는 연극표현에 대한 <물음>과 <비평> 그 자체를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으로 변환시키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캐스트 / 스태프

작, 연출: 미야자와 아키오 宮沢章夫

출연 : 카미무라 사토시 上村聡, 우시오 치세 牛尾千聖, 오바 미나미 大場みなみ,
카미무라 즈사 上村梓, 콘노 유이치로 今野裕一郎,
토키다 미츠히로 時田光洋, 나가이 히데키 永井秀樹,
노노야마 타카유키 野々山貴之, 하시모토 와카코 橋本和加子
야자와 마코토 矢沢誠

미술 : 하야시 마키코 林卷子

음악 : 스키모토 케이치 杉本佳一 (FourColor/FilFla)

의상 : 야마모토 테츠야 山本哲也 (POTTO)

조명 : 사이토 시게오 齋藤茂男 (Theater Creation)
 음향 : 콘노 유이치로 今野裕一郎
 드라마트루기 : 사쿠라이 케이스케 桜井圭介
 무대감독 : 다나카 츠바사 田中翼, 오토모 케이치로 大友圭一郎
 보조연출 : 야마모토 켄스케 山本健介, 이시하라 유야 石原裕也
 홍보사진 : 코야마 타이스케 小山泰介
 영상 : 한다 미츠히루 半田充(MMS)
 디자인 : 소마 쇼우 相馬称
 프로덕션 스태프 : Ruapuru (카네나가 타카오 金長隆子)
 제작 : 유원지재생사업단
 공동제작 : 페스티벌/도쿄
 주최 : 페스티벌/도쿄

/ 공연정보

공연장 : 니시스가모 아트팩토리
 4-9-1 Nishi Sugamo, Toshima-ku, Tokyo-to 170-0001

일정

10/14 (금)	10/ 15 (토)	10/ 16 (일)	10/ 17 일(월)	10/ 18 일(화)	10/ 19 (수)	10/ 20 (목)
19:30*	14:00 19:30*	14:00*	14:00 19:30	19:30	19:30	14:00 19:30*
10/ 21 (금)	10/ 22 (토)	10/ 23 (일)	10/ 24 일(월)			
19:30	14:00 19:30	19:30	14:00			

*공연후 관객과의 대화 있음
 상연시간 : 120 분 (휴식 있음) (예정)

/ 티켓 정보

자유석 (입장번호 포함)

예매 ¥4,500 (당일: +¥500)

“레드와 블랙의 팽창하는 반구체”

오카자키 아트씨어터

작, 연출 : 카미사토 유다이 神里雄大

10/ 28 (금) - 11/ 6 (일)

니시스가모 아트팩토리



“Old Air Conditioner ” (F/T10, 2010) © Yuta Fukitsuka

/ 작품설명

팽창하는 반구체란 대체…?

극적인 신체와 일상의 느슨한 신체를 혼재시키며, 솔직한 언어구사로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연출가 카미사토 유다이의 이끄는 오카자키 아트씨어터.

작년에는 F/T10 공모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과의 문제를 야심차게 다룬 신작 <오래된 에어컨>을 상연. 7인의 출연자 한명 한명이, 에너지 절약이 안되는 <오래된 에어컨>으로서, 끝나버린 자신의 역할과 남아도는 에너지를 각각의 언어와 신체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다이나믹한 연출과 구성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드디어 F/T 주최 프로그램에 참가를 달성한 신작에서 그려지는 것은,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불온한 것, 인간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수께끼, 미지의 무엇에 대한 세계다. 팽창하는 반구체란 대체 무엇일까.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그리고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지진 이후 1개월간, “모든

것이 희미해져 있었다” 라는 카미사토가 부풀어올린 수수께끼의 반구체의 이미지를 극장에서 접할 때 관객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주목받는 신진 배우진과 미술

카미사토는 “연극은 배우예술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연극의 방법론이나 안정된 조화에 구애되지 않고 긴장감과 현장감을 중시하여, 무대 위 배우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번에 그 배우진에는 아주 탁월한 멤버들이 집결했다. 마에다 시로, 미우라 다이스케, 이와이 히데토 등 신진기에 극작가의 초기작품에서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모토히로 카츠유키 감독의 <소림소녀>, 하시구치 료스케감독의 <나를 둘러싼 것들> 등 영화에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우치다 치카가 <헤아캣토상> 이후 2 년만에 참가. 그리고, 로버트 앨런 애커먼 감독의 <엔젤스 인 아메리카>, 사이먼 맥버니의 <순킨>, 노다 히데키 작품에 연속 출연하는 등 국내외의 연출가로부터 촉망받는 배우 성하(成河)가 카미사토의 작품에 처음으로 출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카미사토의 세계관을 확실하게 체현하는 실력과 배우 타케야 키미오, 타카하시 치즈, 와시오 히데아키가 더해져, 관객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스태프로는 미우라 모토이(치텐), 마츠이 슈(샘플) 등을 중심으로, 연출가와 깊은 대화로부터 공간과 작품의 강렬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미술가 스기야마 이타루가 첫 참가. 체육관을 극장으로 만든 니시스가모 아트팩토리에서의 첫 창작을 앞둔 스기야마가, 오카자키 아트씨어터의 기존 스태프진 및 카미사토와 함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 프로필

카미사토 유다이 神里雄大

연출가/작가/오카자키 아트씨어터, 하타하타 대표

1982년, 페루공화국 리마시에서 태어나 가와사키에서 자람. 2003년 와세다 대학재학 중 <오카자키 아트씨어터>를 결성. 06년 <꼬리 잡힌 욕망(피카소 작)>으로 토가 연출가 공쿨 최우수연출가상을 최연소로 수상. 09년 <헤아캣토상>이제 54회 키시다쿠니오 희곡상 최종후보작품에 노미네이트.

09년부터 안무가 시라가 모모코와 함께 그룹 <하타하타>를 결성하여, 댄스도 연극도 아닌 새로운 퍼포밍아트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극작품 외에도 소설과 일러스트, 시의 분야에서도 폭넓은 활동 중.



오카자키 아트씨어터 岡崎藝術座

2003년 4월, 당시 와세다 대학 학생이었던 카시사토 유다이의 연출작품을 상연하는 목적으로 결성하여 지금까지 30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극단명의 유래는 카미사토가 오카자키에게 빛이 있었던 것이 이유로, 오카자키는 극단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와 더불어 극단의 단장으로도 되어 있다. 대표 카미사토 이외의 소속 배우로서 타케야 키미오가 있음.

배우예술로서의 무대를 중시하여, 무대장치는 거의 사용하지 않음. 주최공연에서는 고교생 이하의 관람무료화와 일본어/영어 자막공연 등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관객이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캐스트 / 스태프

작, 연출: 카미사토 유다이 神里雄大

출연: 우치다 치카 内田慈, 성하 成河, 타케야 키미오 武谷公雄,
타카하시 치즈 高橋ちづ, 와시오 히데아키 鷲尾英彰

미술: 스기야마 이타루 杉山至 + 카라스야 鴉屋

무대감독: 토라카와 에이지 寅川英司

조명: 쿠로오 요시아키 黒尾芳昭 (쨌아자)

음향: 타카하시 마이 高橋真衣

영상: 와타나베 카즈키 ワタナベカズキ

의상: 텐진 아야코 天神綾子

사진: 후키츠키 유타 富貴塚悠太

보조연출: 키쿠카와 에리카 菊川恵里佳

제작: 큐나사카 스튜디오, 오카자키 아트씨어터, 페스티벌/도쿄

주최: 페스티벌/도쿄

/ 공연정보

공연장 : 니시스가모 아트팩토리
4-9-1 Nishi Sugamo, Toshima-ku, Tokyo-to

일정

10/ 28 (금)	10/ 29 (토)	10/ 30 (일)	10/ 31 일(월)	11/ 1 일(화)	11/ 2 (수)	11/ 3 (목)
19:30	17:00	17:00*	14:00** 19:30** *	-	19:30	17:00
11/ 4 (금)	11/ 5 (토)	11/ 6 (일)				
19:30*	19:30**	14:00				

*영어 자막 **일본어 자막 ***공연전 관객과의 대화 있음

상연시간 : 90 분 (예정)

/ 티켓 정보

자유석 (입장번호 포함)

예매 ¥3,500 (당일: +¥500)

“카오스*이그자일”

카오스*라운지

10 월 22 일 (토) - 11 월 6 일 (토) (예정)

아키하바라(秋葉原) 일대(예정)



“Destruction*Lounge Revival*Lounge”

/ 작품설명

10 년대의 미술을 체현하는 카오스라운지의 활동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집결한 카오스*라운지. 후지시로 우소와 쿠로세 요헤이가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2010 년 이후, 전시 및 라이브 이벤트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하였고, 일본현대미술의 역사와 문맥에 대한 비평적인 활동으로 여러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2010 년에는 <카오스*라운지 in 타카하시컬렉션히비야>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예술로 취급되지 않았던 인터넷상의 특수한 캐릭터 표현과, 그 작가들을 갤러리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그 직후, 제 2 탄의 기획으로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오타쿠가 전시장에 상주하는 <하메츠(파멸)*라운지>를 개최하여, 그들의 생활 그 자체를 전시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다. 2011 년에는 인터넷에서 태어나 증식해 가는 가상의 캐릭터 “아라카와 토모노리”를 주인공으로,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도쿄 원더사이트에서 발표. 전시회장을 무대화(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화) 함으로써, 인터넷으로의 통로를 찾고, 일본의 인터넷/오타쿠 문화가 갖는

독자적인 공유정신에 형태를 부여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외, 호텔 <카오스*선라인>의 내부 장식을 이용한 작업, 패션브랜드와의 협업 등, 실용적인 디자인과 아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음.

지진 이후의 “캐릭터 문화”

TV 애니메이션, 극장 애니메이션, 만화책, 게임 업계 등, 종전 후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며 발전을 계속했다. 카오스*라운지는 일본을 상징하는 특이한 “캐릭터 문화”에 주목하여, 그 역사를 현대미술의 문맥으로 연결하고, 사회와 공동체의 기억과 무의식을 매개하는 미디어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사회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캐릭터 문화는, 미증유의 대지진 참사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공유한 이후에, 3.11 이후 단절되어 버린 현실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본작품의 타이틀이기도 한 <이그자일>이란 망명, 추방, 방랑하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갖는다. 무대는, 지금도 테마파크처럼 변화하고, 현대일본을 상징하는 캐릭터 문화의 성지 아키하바라. 지진 이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이 장소에, 무수한 캐릭터들과 함께 새로운 회로를 발견하고자 하는, 카오스*라운지의 신작이 만들어진다.

/ 프로필

카오스*라운지 CHAOS*LOUNGE

미술가 후지시로 우소(藤城 嘯)에 의해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전시&라이브 이벤트 기획. 후지시로 우소와 쿠로세 요헤이가 큐레이터를 맡아, 2010년 4월에 개최한 타카하시컬렉션히비야 전람회를 시작으로, 10년대의 아트를 체현하고 있음.



쿠로세 요헤이 黒瀬陽平

미술가/미술평론가. 카오스*라운지 대표

1983년 출생. 미술가/미술평론가. 카오스*라운지 대표. 2010년에 카오스*라운지 선언을 발표 후, 후지시로 우소와 공동기획 <카오스*라운지 in 타카하시컬렉션히비야>, <하메츠*라운지>를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불러 일으킴. <캐릭터가 보고 있다> 등의 논문 발표

/ 캐스트 / 스태프

큐레이터 : 쿠로세 요헤이 黒瀬陽平

참가 아티스트 : 우메자와 카즈키 梅沢和木, 후지시로 우소 藤城嘘 외 10 여명

제작 : 페스티벌/도쿄, CHAOS*LOUNGE

주최 : 페스티벌/도쿄

/ 공연정보

공연장 : 아키하바라(秋葉原) 일대

일정 : 10/ 22 (토) - 11/ 6 (토)

/ 티켓 정보

미정. F/T 회수권 대상외

자세한 사항은 F/T 홈페이지에서 공지예정

“정물화 - Still Life”

구성, 안무, 연출

: 시라이 츠요시 白井剛

10/ 27 (목) - 10/ 30 (일)

지유가쿠엔 묘우니치칸(自由学園明日館) 강당



© Ayako Abe

/ 작품설명

F/T09 봄 <블루라이온> 이후, 약 1년반만의 도쿄 공연.

시라이 츠요시는 1996년부터 댄스 컴퍼니 “이토킴+빛나는 미래”의 작품에 출연하며, 무용수로서 경력을 쌓는 한편, “Study of Live works 바네토”의 설립에 참가하였다. 2000년, 24세의 나이에 바놀레 국제안무상을 수상하여, 04년에는 솔로작품 <질량, 슬라이드, &.>을 발표. 06년에는 이 작품으로, 신진 안무가의 등용문인 도요타 안무어워드의 그랑프리를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존 케이지의 음악을 이용하는 현대음악 퀘텟, 아르디티 현악 4중주단과의 협업 공연을 하였고, 08년부터 교토예술센터 <연극계획>에 참가하여, 2년에 걸쳐 레지던스를 함.

역사적인 건축물 안에서 만들어지는 소리와 신체, 공간의 기적적인 대화

09년에 교토예술센터에서 제작, 10년에 초연된 최신작 <정물화 - Still Life>. 침묵 속에 배치된 신체와 소리가, 공간을 재편성하는 본 작품은, F/T11에서는 역사적인 건축물 지유가쿠엔 묘우니치칸 강당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다시 그려진다.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작 <블루라이온>에서는 무용수로 테라타 미사코, 스즈키 유키오를 기용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을 대상화/추상화하는 안무에 시도했던 시라이. 이번 작품에서는 “춤이 추어지는 순간에 보이는, 희미하지만 확실한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싶다고 말한다. 화가가 모델을 대하는 시선처럼, 춤추는 신체와 그것이 일어나는 공간의 질감과 강도를 다루었을 때, 무용수들이 움직인 잔상이 그리는 것. 그것은 “댄스와 타자, 댄스와 음악, 댄스와 말”과 같은 “댄스트루기”의 발명에 도전하고 있는 시라이가 보여줄 새로운 댄스의 지평일지도 모른다.

스즈키 미나코, 타카기 키쿠에, 타케우치 히데아키, 그리고 Noism 에서 활동했던 아오키 나오야의 라인업과 함께, 시라이 츠요시 본인이 오랜만에 출연하는 본 작품에서, 그 진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필

시라이 츠요시 白井剛

안무가, 무용수(AbsT, 바네토)



1976 년 나가노 출생. 1996 년부터 2000 년까지 “이토킴+빛나는미래”에 참가. 98 년에 “Study of Live works 바네토” 설립. 00 년 바느레 국제안무상, 06 년 토요타 안무어워드 그랑프리 수상. 06 년 AbsT 를 설립하여, <시하니>, <자코>를 발표. 또 무용수로서 유리응(홍콩)의 <악마의 이야기>, 이토킴의 <킨지키禁色>에 출연하였고, 아르디티 현악 4 중주단과의 협업, 덤타입의 후지모토 타카유키 등 10 명의 아티스트가 제작한 <True>에 참가하여 국내외에서 공연투어를 하였다. 07 년 제 1 회 일본 댄스포럼상 수상. 09 년 <블루라이온>, 10 년 <정물화 - Still Life>를 교토에서 제작/발표. 10~11 년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YCAM) 과의 영상프로젝트 <Choreography filmed: 5 days of movement>를 진행하며, 현재 <http://c-filmed.ycam.jp> 에서 영상장품을 공개중으로, 인터넷에서의 댄스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

/ 캐스트 / 스태프

구성, 안무, 연출: 시라이 츠요시 白井剛

출연: 아오키 나오야 青木尚哉, 스즈키 미나코 鈴木美奈子,

타카기 키쿠에 高木貴久恵, 타케우치 히데아키 竹内英明, 시라이 츠요시 白井剛

무대감독: 나츠메 마사야 夏目雅也

미술: 스기야마 이타루 杉山至 + 카라스야 鴉屋

조명: 요시모토 유키코 吉本有輝子

음향: 미야타 미츠노리 宮田充規

의상: 키요카와 아츠코 清川敦子

기획: 하시모토 유스케 橋本祐介, 마루이 시게키 丸井重樹

제작 스태프: 카와사키 요코 川崎陽子(교토예술센터), 와다 나가라 和田ながら

제작: 교토아트센터 <연극계획 2009>

주최: 페스티벌/도쿄

/ 공연정보

공연장: 지유가쿠엔 묘우니치칸 강당

2-31-3 Nishi Ikebukuro Toshima-ku Tokyo-to

TEL (+81)-3-3971-7535

일정

10/ 27 (목)	10/ 28 (금)	10/ 29 (토)	10/ 30 (일)
19:00	19:00*	14:00/19:00	14:00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있음

상연시간: 100 분

/ 티켓 정보

자유석 (입장번호 포함)

예매 ¥4,000 (당일: +¥500)

학생 ¥3,000 고등학생 이하 ¥1,000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The Show Must Go On” 구성, 연출 : Jérôme Bel (프랑스)

11 월 12 일 (토) - 11 월 13 일 (일)

사이노쿠니(彩の国) 사이타마예술극장

공동주최 : 사이노쿠니 사이타마예술극장
(공익재단법인 사이타마현예술문화진흥재단)



© Mussacchio Laniello

/ 작품설명

댄스계의 혁명가, 제롬 벨의 역사적 걸작

댄스라는 표현장르에 정치적이고 비평적인 시선을 줄곧 던지고 있는 댄스계의 혁명가, 제롬 벨. 그의 대표작이자 역사적인 걸작으로도 불리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의 일본 버전이 사이노쿠니 사이타마예술극장과 공동주최로 제작된다.

일본에서의 작품 상연은 2000년 교토, 요코하마(카나가와 국제예술페스티벌)에서의 <셔츠학(學)>, 2005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피켓 클런천과 협업한 작품 <피켓 클런천과 나>, 2010년 사이노쿠니 사이타마예술극장에서의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와 공동제작 <3 개의 이별>등이 있음. 그리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제롬 벨 자신의 대표작이며 최고 걸작이라 불리는 본 작품의 일본 버전이 상연된다. 세계에 충격을 안긴 본 작품은, 01년에 파리 시립 극장에서 초연된 이래, 세계

50 도시 이상에서 투어를 하고, 리옹 오페라발레단의 레퍼토리가 되어, 05년에는 벤티상(뉴욕 댄스 앤 퍼포먼스 어워드)을 수상했다.

댄스, 극장, 그리고 현대의 신체에 대한 아이러니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관객들에게 혼란, 충격, 희망을 주는 동시에,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제롬벨이 고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80년대 이후의 팝송을 무대 정면의 DJ가 플레이하기 시작한다. 첫 곡 <Tonight>이 흐르는 가운데 공연장은 암전되고, 다음 곡 <Let the Sunshine in> 플레이 되면, 스테이지에 조명이 비춰진다. 비틀즈, 데이빗 보위, 퀸의 곡과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명곡에 맞추어 퍼포머들이 춤추기 시작하면, 관객들은 때로는 웃고, 같이 춤추기도 한다.

본 작품에 있어 관객들이 무용작품에 기대하는 안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무대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즐겁지만 전혀 스펙타클하지 않은 퍼포먼스는, 팝송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가 생산하여 유통시킨 기호, 획일화된 신체와 행동에 대한 제롬벨 자신의 안티테제의 표현이다. 또한 관객들에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진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 체험을 한 이는 누구든지, 자신의 댄스, 무대감상, 그리고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체와 그 존재방식에 대한 기존 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공모에 의해 모인, 직업도 연령도 성별도 제각각인 출연자

이번 일본 버전제작에 앞서 출연자를 공모로 모집했다. 예정된 출연자 수를 크게 뛰어넘는 239의 응모자 중에서, “출연자의 구성은 상연되는 도시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싶다”는 연출 의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26명의 출연자가 선발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성 13인, 여성 13인, 연령은 17세부터 67세까지, 직업은 무용수, 배우, 주부와 프리터 등 다양한 배경과 외모를 지닌 출연자가 집결했다.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이들이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논쟁을 불러 일으켜온 본 작품이, 현재의 일본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를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 사용곡목

- West Side Story Ost: “Tonight”
- Galt MacDermot “Let the Sunshine In” (short version)
- The Beatles “Come Together”
- David Bowie “Let’s Dance”
- Reel 2 Real “I like to Move It”

- Lionel Richie “Ballerina Girl”
- Tina Turner “Private Dancer”
- Los del Río “Macarena”
- Nick Cave and the Bad Seeds “Into My Arms”
- Celine Dion “My Heart Will Go On”
- Beatles “Yellow Submarine”
- Édith Piaf “La Vie En Rose”
- John Lennon “Imagine”
- Simon & Garfunkel “Sound of Silence”
- The Police “Every Breath You Take”
- George Michael “I Want Your Sex (제 1 부 and 2)”
- Roberta Flack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 Queen “The Show Must Go On”

/ 프로필

Jérôme Bel

안무가, 연출가



1964 년 프랑스 출생. 파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안무가. 신체표현에 설명적인 언어를 조합한 개념적인 작품으로 알려짐.

92 년 알베르빌 올림픽에서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담당한 필립 드 쿠플의 조연출을 맡음. 94 년에 최초의 안무 작품을 발표한 이래,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2004 년에는 파리 오페라발레단에 초청되어 베로니크 두아노를 상연. 01 년에 발표한 대표작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05 년 뉴욕공연을 통해

벳시상을 수상함.

05 년 타이의 안무가 피쳇 클런천과의 협업으로 두사람의 신체표현과 대화를 구성한 <피쳇 클런천과 나>를 발표, 08 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상연하였고,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공헌을 인정받아 Routes Princess Margriet Award 를 유럽 문화재단으로부터 수여받았다. 10 년에는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매커와의 공동창작 <3 개의 이별>을 아이치트리엔날레, 사이노쿠니 사이타마예술극장에서 상연.

/ 캐스트 / 스태프

구성, 연출 : 제롬 벨 Jérôme Bel

출연 : 아즈마루 東丸, 아다치 토모미, 이가라시 메구미, 이마이 진야, 오타 유카리, 오카다 토모요, 카와무라 토모야, 사사키 카야, 시노다 치하루, 시노무라 히로아키, 장 필립 마르틴 Jean Philippe Martin, 타케야 아케미, 타시로 에마, 정 선영, 토미타 다이스케, 나오에 사나에, 나가사카 미치코, 하세가와 네이, 하야시 료스케, 후지사와, 후지타 카즈키, 마에자와 카나에, 마츠다 잇코, 마츠자와 테루아키, 야마구치 에리카, 리 알도 Aldo Lee

조연출 : 디나 딕 Dina Dik, 엔리크 네베스 Henrique Neves

협력 : 프랑스 인스티튜트(도쿄/요코하마)

후원 : 재일 프랑스 대사관

주최 : 페스티벌/도쿄, 사이노쿠니사이타마예술극장(공익재단법인 사이타마현예술문화진흥재단)

/ 공연정보

공연장 : 사이노쿠니 사이타마 예술극장

3-15-1 Uemine, Chuo-ku, Saitama-shi, Saitama-ken

TEL: 0570-064-939

일정

11/ 12 (토)	11/ 13 (일)
16 : 00*	16:00

*공연후 관객과의 대화 있음

상연시간: 90 분

2001 년 Theatre de la Villa (파리) 초연 작품

/ 티켓 정보

지정석

예매 ¥3,000 (당일: +¥500)

학생 ¥2,500

사이타마재단 회원 ¥2,700 (당일: ¥3,200)

“ F/T 공모프로그램 ”

참가 컴퍼니/아티스트(공연순)

토리코엔 鳥公園

쿠니오 Kunio

바나나가쿠엔 준죠오토메구미 バナナ学園純情乙女組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로로 ロロ

피차무 컴퍼니 ピーチャム・カンパニー

정금형(한국)

무라카와 타쿠야 村川拓也

랜드스태이징(Landstaging) 씨어터 컴퍼니(중국)

모던 테이블(한국)

초이 카 파이 Choy Ka Fai (싱가폴)

일정 : 10 월 19 일 일(수) - 11 월 8 일 일(화)

장소 : 씨어터 그린, 지유가쿠엔 묘우니치칸, 아울스팟 외



/ 공모프로그램 소개

공모에 의해 선정된 신진 컴퍼니의 자체공연을 F/T가 강력히 서포트.
올해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가 집결!

진화 & 확대되는 F/T11의 <공모프로그램>

F/T10부터 신설되어, 신진 아티스트/컴퍼니의 자체공연을 서포트하는 <F/T공모 프로그램>. F/T11에서는 이 <F/T 공모프로그램>이 더욱 진화&확대! 공모의 대상지역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여,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젊은 아티스트의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어워드를 신설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상연된 작품 중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작품에는 F/T어워드를 수여하여, 이듬해 이후의 F/T주최 작품에 초청된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아시아의 비평가/저널리스트가 도쿄에 체재하며 공모프로그램의 작품을 관람하고, 그들의 나라를 향한 다언어의 비평이 도쿄로부터 발신된다. 이 <F/T 공모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창작 / 비평(평가) / 유통이 이루어지는 아시아의 플랫폼을 꿈꾼다.

일본전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선정된 아티스트가 속속 등장! 주목할 작품이 가득!

F/T 10에 이어 올해에도, 일본 전국으로부터 열정이 넘치는 70여 단체/개인이 응모하였고, 페스티벌 사무국의 선발을 거쳐 최종적으로 7팀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에 일본이 직면한 미증유의 상황,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의 가치관 속에서 선정된 아티스트/컴퍼니가, 그들이 마주한 현실과 무대예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7작품 모두를 놓칠 수 없다.

또한 올해부터 공모대상지역을 아시아지역으로 확대! 한국, 중국, 타이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응모를 뛰어넘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약 80여건의 응모가 있었다. 선정 결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총 4팀이 결정. 동시대의 아티스트 각각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무엇에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기법을 통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지 잘 지켜보아야 한다.

아시아 전역으로부터 모인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부딪치는 <F/T 공모프로그램>은 아시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장이 될 것이다.

드디어 <F/T>어워드도 시작!

<F/T11 공모프로그램>에서 상연된 작품 중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우수한 작품/아티스트에게는 F/T어워드를 수여. 창작의 거점을 따지지 않고, 같은 평가기준에서 작품을 심사함으로써, 아시아 공통의 평가축을 창출하고자 한다. 수상자는 이듬해 이후의 페스티벌에서 F/T주최 작품으로서 작품상연을 하게 됨으로써,

신진이 도약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공모프로그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제1회의 어워드를 어떤 아티스트/컴퍼니가 수상하게 될지, 아시아 전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이 집중된다!

/ F/T11 공모프로그램 어워드 심사위원

우치노 타다시 内野 儀

1957년생. 연극 비평가·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전문은 일미현대연극. 표상문화론학회 이사, 카나가와 예술문화재단 이사, 세종(Saison)문화재단 평의원. 미국의 학술지 “TDR”(MIT Press) 편집위원. 저서로 「멜로드라마의 역습-사(私)연극의 80년대」 「멜로드라마에서 퍼포먼스까지 - 20세기 아메리카의 연극론」 “Crucible Bodies” 등

오토리 히데나가 鴻 英良

1948년생. 연극비평가. 러시아 예술사상 전공. 워커아트센터 글로벌위원, 국제연극제 라오콘 예술감독, 무대예술연구센터 부소장을 역임. 저서로 「20세기극장-역사로서의 예술과 세계」, 공저로 「반항머신 리처드포어맨의 세계」 외, 역서로 타데우즈 칸토르의 「Let the Artists Die」 「The dead class」, 타르코프스키 「영상의 포에지아」 등 다수, 또한 「씨어터 아트」 제 1기 편집대표, 「무대예술」(1~10호) 편집위원을 역임.

한스-티스 레만

1944년 독일 출생. 연극이론가/비평가. 독일어권 현대연극연구의 제 1인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수. 그리고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음. 1999년에 발표한 연극이론서 <포스트드라마연극>은 현재 18개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연극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기센대학 응용연극학과에서는 리미니 프로토콜, 르네 폴레쉬 등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교육자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마쓰다 마사타카 松田正隆

1962년생. 90년, 교토를 거점으로 시공극장을 결성. 나가사키 방언을 이용한 대사극 「카미야 에츠코의 청춘」 「언덕위의 집」 「바다와 양산」의 나가사키 3부작으로 일약 주목받기 시작. 96년 「바다와 양산」으로 키시다 쿠니오 희곡상을 수상. 97년 극단을 해산, 극작가 전업을 거쳐, 2003년에 마레비토 씨어터 컴퍼니를 결성. 최근의 주요 작품으로 「크립토크래프」(07년), 「Park City」(09년), 「히로시마-합천 : 두 도시를 둘러싼 전람회」 등이 있음. 현재 교토조형예술대학 무대예술학과 객원교수.

소마 치아키 相馬千秋 F/T 프로그램 디렉터

/ 토리코엔 鳥公園

“야노늬의 끝없는 따뜻함 おねしょ沼の終わらない温かさについて”

작/연출 : 니시오 카오리 西尾佳織



© Ayako Tsukada

니시오 카오리가 이끄는 토리코엔은 “올바른 것”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 그렇지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조금 비뚤어진 각도로부터, 부드러운 빛을 비추고 있다. 공간에서의 미술, 빛, 소리, 신체의 배치와 관계를 제시하며, 사물의 질감에 집착하는 언어사용을 특징으로 하는, 연극 고유의 표현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작품의 테마는 “난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린” 그들은, 엉거주춤한 신체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일정 : 10 월 19 일(수) - 24 일(월)

장소 : 씨어터 그린 BASE THEATER

상연시간 : 80-90 분 (예정)

10 월 19 일(수)	10 월 20 일(목)	10 월 21 일 (금)	10 월 22 일(토)	10 월 23 일(일)	10 월 24 일(월)
	14:00		14:00	14:00	14:00
19:00	19:00	19:00	19:00	19:00	

/ 쿠니오 KUNIO “엔젤스 인 아메리카”

제 1 부 : “밀레니엄 어프로치스”, 제 2 부: “페레스트로이카”)

연출, 미술 : 스기하라 쿠니오 杉原邦生

각본 : 토니 쿠쉬너 Tony Kushner



© Toshihiro Shimizu

일본 관서지방을 거점으로 스기하라 쿠니오가 희곡을 중심으로 연출하는 프로듀스 공연형식으로 활동하는 KUNIO. 2009 년에 상연한, 토니상과 풀리처상에 맞는 토니 쿠쉬너의 걸작 희곡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제 1 부 “밀레니엄 어프로치스”에 이어, 이번에는 제 2 부 “페레스트로이카”의 상연을 더한 전편상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초연으로 교토예술센터 “무대예술상 2009” 가작을 수상한 스기하라 쿠니오는, 총 7 시간이 넘는 연속상연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일정 : 10 월 20 일(목) - 10 월 23 일(일)

장소 : 지유가쿠엔 묘우니치칸 강당

상연시간 : 제 1,2 부 각 4 시간 예정

10 월 20 일 (목)	10 월 21 일 (금)	10 월 22 일 (토)	10 월 23 일 (일)
	11:00 (제 1 부)	11:00 (제 1 부)	12:00 (제 2 부)
16:00 (제 1 부)	16:00 (제 2 부)	16:00 (제 2 부)	

프로필

스기하라 쿠니오 杉原邦生

1982년 도쿄에서 태어나 카나가와에서 자람.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고, 여러 컴퍼니와 프로젝트에서 연출활동을 함. 최근의 작품으로 2009년 <14세의 나라>(미야자와 쿠니오 작), 2010년 기노시타 가부키<칸진쵸>, KUNIO07 <문화제> 등이 있음. KUNIO06 <엔젤스 인 아메리카 - 제1부>에서는 교토예술센터 “무대예술상 2009” 가작 수상. 그리고, 2008년부터 2년간 고마바야고라 극장 페스티벌(서미트)의 디렉터 역임. 교토 엑스페리먼트 프린지 “HAPPLAY”의 기획을 담당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 Yujiro Sagami

캐스트 / 스태프

연출, 미술 : 스기하라 쿠니오 杉原邦生

출연 : 다나카 유, 사와무라 키치로(니트캡씨어터), 사카하라 와카코, 다나카 유아(나카노 시게키+프랑겐즈), 마츠다 타쿠조(아마가사키 RP), 이케우라 사다무(오니쿠 du Soleil), 시노미야 쇼고, 모리타 마사카즈(아마가사키 RP)

각본 : 토니 쿠쉬너

번역 : 요시다 미에

무대감독 : 니시다 키요시

조명 : 우오모로 리에

음향 : 사이토 마나부

의상 : 우에다 노리아키

조연출 : 미츠이 아키

제작 스태프 : 츠치야 와카코

조성 : 예술문화진흥기금

주최 : KUNIO

티켓 W3,300 학생 & 25 세 이하 W2,800

세트티켓 W4,800 학생 & 25 세 이하 W3,800

문의 KUNIO: 075-712-6004 mail: kunio@mb.vis.ne.jp

<http://www.kunio.vis.ne.jp/>

/ 바나나가쿠엔 준쥬오토메구미 バナナ学園純情乙女組
“바나가쿠 배틀★☆열혈스포츠가을대운동회”

구성, 연출, 안무 : 니카이도 토코 二階堂瞳子



압도적인 독창성과 에너지로, 연극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는 “바나나가쿠엔 준쥬오토메구미”가 F/T 에서 <가을 대운동회>와 함께 “절규오타쿠아이돌라이브”를 감행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카오스, 범람하는 정보와 속도, 그리고 그곳에 개입하는 계산된 연출과 출연자의 개성이 불러 일으키는 압도적인 테러 공간. “단순한 연극에는 흥미 없습니다!!!” 라고 호언하는 단장 니카이도 토코는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동시대 연극의 최선단으로 선언하고자 한다. 이 기세를 몰아, 바나나가쿠엔이 세계로 뛰어 오른다.

일정 : 10 월 26 일(수) - 11 월 1 일(월)

장소 : 씨어터 그린 BIG TREE THEATER

상연시간 : 60 분 (예정)

10월 26 일 (수)	10월 27 일 (목)	10월 28 일 (금)	10월 29 일 (토)	10월 30 일 (일)	10월 31 일 (일)	11월 1 일 (월)
14:00	14:00	14:00	14:00	16:00	14:00	14:00
19:30	19:30	19:30	19:30	20:00	19:30	

프로필

니카이도 토코 二階堂 瞳子

바나나가쿠엔의 리더, 연출, 안무, 퍼포머. 홋카이도 출신. 2008년 바나나가쿠엔 결성.



캐스트 / 스태프

구성, 연출, 안무 : 니카이도 토코 二階堂 瞳子

출연 : 카토 마사미, 노다 유키, 마에조노 아카리, 아사카와 치에
이외 50명(예정)

주최 : 바나나가쿠엔 준쥬오토메구미

티켓 W2,500 자유석

문의 banagaku@gmail.com

[http:// banagaku.xxxxxxxx.jp/](http://banagaku.xxxxxxxx.jp/)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모티베이션 대행”

구성, 연출: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the acting motivation” © Ujin Matsuo

부토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댄스 작품을 발표해온 안무가 네지 피진. 안무작품 <syzygy>는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EX2011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본작 <모티베이션 대행>은, 아티스트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바탕으로 한 셀프 다큐멘터리. 작년, 교토국제무대예술제 2010 프린지에서 상연한 작품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서로 공유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상이한 세계의 리얼리티를 찾아감으로써,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생각한다.

일정 : 10 월 27 일(목) - 10 월 30 일(일)

장소 : 씨어터 그린 BASE THEATER

상연시간 : 미정

10 월 27 일 (목)	10 월 28 일 (금)	10 월 29 일 (토)	10 월 30 일 (일)
		15:00	15:00
19:30	19:30	18:00	

프로필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안무가/무용가. 1980년 아키타 출생.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마로 아카지(麿赤兒)가 이끄는 부토 컴퍼니 다이라쿠다칸에 소속. 05년부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자신의 몸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한 솔로댄스와 몸을 물질적으로 취급한 안무작품을 발표하였다. 아티스트와의 협업 “짓켄(실험) 유닛”의 활동과, 이벤트 “아키치(공터)”등의 기획도 하고 있음. 요코하마 댄스컬렉션 EX2011 심사위원상 수상. 최근에는 안무 작품외에, 고향의 어머니에게 댄스를 강의한 <어머니와 함께>, 아티스트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소재로 한 <모티베이션 대항> 등의 퍼포먼스를 제작.



© Ujin Matsuo

캐스트 / 스태프

구성, 연출 :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출연 :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미정

조명 : 나카야마 나미

영상 : 이데 미노루

제작 스태프 : 오히라 카츠히로(PLATEAU)

특별협력 : 코가네이(小金井) 아트스팟 샤토 2F

주최 : 네지 피진 振子びじん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2,800 학생 ₩2,000

자유석

문의 pijinneji@gmail.com

<http://www.geocities.jp/nejipijin/>

／ 로로 口口 “토코나츠 常夏”

각본, 연출 : 미우라 나오유키 三浦直之



대학재학중에 결성한 이래, 여러 연극상을 수상하며 도쿄의 소극장 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로로. 리더인 미우라 나오유키의 배경에 있는 서브컬처의 순수한 생각을 바탕으로, 여름과 남녀를 중심으로 묘사한 “동시다발적 정보과다” 스토리를, 스피디한 연출로 전개한다. 이번에는 F/T공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퍼니 최초의 장기적인 창작과정, 흥런 공연에 도전한다. 아티스트 자신들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납득 가능한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일정 : 10월 28 일(금) - 11월 5 일(토)

장소 : 씨어터 그린 BOX in BOX THEATER

상연시간 : 90 분 (예정)

10월 25일 (화)	10월 28일 (금)	10월 29일 (토)	10월 30일 (일)	10월 31일 (월)	11월 1일 (화)	11월 2일 (수)	11월 3일 (목)	11월 4일 (금)	11월 5일 (토)
		14:00	14:00				14:00		15:00
19:0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프리뷰 공연

프로필

1987년 미야기 출생. 로로 리더. 2009년에 처녀작 <가족과 그외의 많은 것들>이 오지소극장의 희곡공모에 입선하면서, 일본대학 재학중에 로로를 결성 하였다. 모든 작품의 각본과 연출을 맡음. 같은 작품으로 2009년 사토사키치 연극상 최우수각본상을, <보이 및 걸>은 2010년도 사토사키치 연극제 골든폭스상을 수상. 교토 익스페리먼트 프린지의 지방공연, 고마바아고라 겨울 서미트2010의 기획등에도 참가하고 있음



캐스트 / 스태프

각본, 연출: 미우라 나오유키 三浦直之

출연 : 이타바시 준야, 카메지마 잇토쿠, 시노자키 다이코, 모치즈키 아야노, 모리모토 하나(이상 로로), 기타가와 레이(나카노 시게키+프랑켄즈), 타가 아사미

미술 : 마츠모토 켄이치로

조명 : 쿠도 마사히로 (Fantasista?ish.)

음향 : 이케다 노부

의상 : 후지타니 코코 (faifai)

홍보미술 : 타마리 타츠키

조연출 : 야마구치 치하루

제작 스태프 : 사카모토 모모(예정)

협력 : 나카노 시게키 + 프랑켄즈 中野成樹 + フランケンズ, Fantasista?ish., 快快(faifai), 로쿠샤쿠도 六尺堂, 한츄유에이 範宙遊泳

주최 : 로로 □□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2,800

고등학생 이하 ₩1,500

프리뷰공연 ₩1,800 프리뷰공연 관람자 할인 ₩2000 (예정)

문의

090-6182-1813 mmoomm_s@yahoo.co.jp

<http://llo88oll.com>

피차무 컴퍼니 ピーチャム・カンパニー “부활”

각본 : 키요스에 코헤이 清末浩平

연출 : 가와구치 노리시게 川口典成



© Kinya Yoshida

2009 년 극단 “지상 3mm”의 가와구치 노리시게가 대표와 연출을 맡고, 극단 “서커스 극장”의 키요스에 코헤이가 각본으로 합류하면서 탄생한 피차무 컴퍼니. 도쿄라는 도시에 물음을 던지는 연작의 제 3 부작에 해당하는 본작품은, 나카자와 신이치中沢新一의 <어스다이버>를 출발점으로 하여, 생과 사를 연결하는 센서로서의 도쿄타워와 대치하면서 창작되는 야외 연극. 과거에 있었던 세계를 위한 레퀴엠과 다가올 세계를 위한 축제와 같은 연극공간이 만들어진다.

일정 : 10 월 29 일(토) - 11 월 7 일(월) (예정)

장소 : 도쿄 시바(芝)공원 집회광장(예정)

상연시간 : 100 분 (예정)

10월 29 일 (토)	10월 30 일 (일)	10월 31 일 (월)	11월 1 일 (화)	11월 2 일 (수)	11월 3 일 (목)
19:00	19:00	19:30	19:30	19:30	19:00

프로필

가와구치 노리시게 川口典成

1984년 히로시마 출생. 연출가, 피차무 컴퍼니 대표. 도쿄대학 종교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극단 “지상 3mm”에서 각본과 연출을 했고, 극단 “서커스극장”의 합류 이후 연출에 전념. 타자의 흔적으로서의 말과 배우의 살아있는 신체가 긴장감을 내포하며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의 의식적, 무의식적 분출을 제 1 원리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키요스에 코헤이 清末浩平

1980년 오이타 출생. 극작가. 피차무 컴퍼니 소속. 도쿄대학 일본문학 석사. 극단 “서커스극장”의 대표로 각본과 연출을 담당했으나, 극단 “지상 3mm”와 합류하며 각본을 담당. 주제의 보편성과, 시를 내포하는 농축된 본문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다.



캐스트 / 스태프

각본 : 키요스에 코헤이 清末浩平

연출 : 가와구치 노리시게 川口典成

출연 : 도노시타 카츠키, 야에카시와 타이치, 히라카와 나오히로 외

미술 : 미즈타니 유지(오우사마王様美術)

조명 : 사가야 사키코(colore)

음향 : 사토 코지(SugarSound)

음악 : 대니스미스 프로젝트 Danny Smith Project

의상 : 타케우치 요코

소품 : 츠지모토 나오키 (Nichecraft)

제작 스태프 : 이와마 마이코

프로듀서 : 모리사와 유이치로 (피차무 컴퍼니)

주최 : 피차무 컴퍼니

티켓 예매 ₩3,000 당일권 ₩3,500

학생 ₩2,500 자유석

문의 피차무 컴퍼니 03-5373-2975 peachum_company@yahoo.co.jp

<http://peachum.com>

/ 정금형 (Korea) “유압진동기”

연출, 출연 : 정금형



© Gajin Kim

자기만의 이채로운 세계관으로, 2011년 2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TPAM의 해외쇼케이스에 한국 대표로 초청되는 등, 아시아의 주목받는 여성 아티스트 정금형.

다큐멘터리적인 영상, 스스로의 나레이션, 라이브 퍼포먼스로 구성되는 본 작품은, 굴삭기를 이상형으로 삼아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과정을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관능적으로 그려낸다.

일정 : 11월 1일(화) - 3일(목)

장소 : 씨어터 그린 BASE THEATER

11월 1일 (화)	11월 2일 (수)	11월 3일 (목)
20:00	20:00	17:00

상연시간 : 60분

프로필

정금형

사람과 그를 둘러싼 사물과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테마로 하는 한국의 아티스트. 어디에도 있는 사물을, 불가사의한 생활에 결합시키면서, 자신의 안무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독특하고 신기하게 마음을 흔드는 퍼포먼스로 변화시킨다. 2009년 서울 뉴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우수대안시각상 수상.



캐스트 / 스태프

각본, 연출, 영상, 편집: 정금형 / 씨네마토그래피 : 전호승, 박봉우, 최영교 / 편집 : 정영훈 / 영어번역 : 허윤경 / 일어번역 : 오미지 / 조각 : 김승영 / Special Thanks to 정영훈 / 주최 : 페스티벌/도쿄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3,000

학생 ₩2,500

자유석

/ 무라카와 타쿠야 村川拓也 “차이트게버 Zeitgeber”

연출 : 무라카와 타쿠야 村川拓也



일본 관서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연출가 무라카와 타쿠야는 학생시절부터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였고, 2004년부터 치텐(地点)에서 조연출을 맡은 후, 09년 독립하여 무대작품과 영상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작년부터 노동을 축으로 작품제작을 계속하여, 전작 <후지노하나>에서는 간병 일을 주제로 삼았다. 이번 작품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간병인과 피간병인의 신체를 무대위에 재현함으로써, 목적을 잃은 노동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한다.

일정 : 11월 4일(금) - 8일(화)

장소 : 씨어터 그린 BIG TREE THEATER

상연시간 : 60분 (예정)

11월 4일 (금)	11월 5일 (토)	11월 6일 (일)	11월 7일 (월)	11월 8일 (화)
	14:00	14:00	14:00	14:00
19:30	20:00	20:00	20:00	17:00

프로필

무라카와 타쿠야 村川拓也

1982년 시가현 출생. 연출가. 2005년 대학재학중에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타이완 우산토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초청됨. 같은 해, 치텐에서 조연출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에 독립하여 연출활동을 시작. 주요 작품으로 09년 <건축사와 아씨리황제> (F.아라발 작), 10년 <코하시리> (미야모토 츠네이치 인용). 11년 10월, 오카야마현 이누지마에서 민속학자 미야모토 츠네이치를 제재로 한 연극작품을 발표예정임. 사회와 인간을 둘러싼 모순에 주목하여, 그곳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거나,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한다. 무대예술 이외에서도 활동을 폭을 넓히고 있음



캐스트 / 스태프

연출 : 무라카와 타쿠야 村川拓也

출연 : 쿠도 슈죠

무대감독 : 하마무라 슈지

조명 : 미정

음향 : 코바야카와 야스타카

홍보미술 : 미카미 료

제작 스태프 : 토야마 리키

협력 : 비와케이枇杷系 스튜디오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2,800

학생 예매 ₩2,000 학생 당일권 ₩2,300

리피터 할인 ₩1,000 (예정)

문의

080-6507-7828

<http://murakawatakuya.blogspot.com>

/ 랜드스태이징 (Landstaging) 씨어터 컴퍼니 (China)
“River! River! River!”

연출: 장 닝베이 Ningbei Zang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함께 가속화되는 환경파괴.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댐 건설의 폐해에 초점을 맞춰 경종을 울린다. 2009년에 여러 아티스트들과 상하이에서 시작한 랜드스태이징 씨어터 컴퍼니의 작품은 언제나 리얼한 생활에 정면으로 마주한다. 중국의 신문 각지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예술체험”으로 평가받는 본 작품. 영상과 댄스를 결합시키면서 사회에 대한 적나라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

작품을 통해, 중국의 젊은 아티스트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1월 6일 (일)	11월 7일 (월)	11월 8일 (화)
17:00	17:00	19:00

일정 : 11월 6일(일) - 11월 8일(화)

장소 : 씨어터 그린 BASE THEATER

상연시간 : 75 분

프로필

장 닝베이 Ningbei Zang

연출가 / 프로듀서, 난징 출신. 난징 대학에서 미술을, 북경의 센트럴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미술사를, 에딘버러의 QMUC에서 연극을 공부하고, 현재는 상하이 거점으로 랜드스태이징 씨어터 컴퍼니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연출가, 작가, 프로듀서, 배우로서 20작품 이상에 참가하여, 250여회의 공연을 함.



연출 : Ningbei Zang / 댄스 : Zhen Li / 출연 : Huanhuan Jin, Tianmin Guo, Nan Xu, Weida Ge, Xinlong Liu, Ruhui Wang, Chaolun Wan / 기술감독 : Zhongguan Yu / 무대감독 : Ju Zhang / 영상 : Zhi Song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3,000
 학생 ₩2,500
 자유석

모던 테이블 (한국) “어웨이크”, “조커스 블루스”

안무, 음악 : 김재덕



“Joker’s Blues” © SungBok Choi



“Awake” © Sukgui Yoon

한국국내에서 수차례 수상경력과, 베니스 비엔날레를 포함한 해외 페스티벌 참가 경험을 가진 27세의 김재덕이 이끄는 댄스컴퍼니 모던 테이블이 <어웨이크>와 <조커스 블루스>로 F/T에 첫 참가한다. 2009년에 도쿄 댄스트리엔날레에서도 보여준, 고도의 신체능력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라이브의 판소리가 융합하는 다이내믹한 무대. 한국의 전통문화를 독창적인 기법으로 현대화시킨 뜨거운 퍼포먼스에 의해, 스테이지와 객석이 하나가 된다.

11월 7일(월)	11월 8일(화)
19:00	19:00

일정 : 11월 7일(월) - 11월 8일(화)

장소 : 아울스팟

상연시간 : 70 분 (휴식 있음)

프로필

김재덕

자신의 작품에서는 안무와 출연외에도, 작사/편곡 등 음악을 담당함. 음악과 조화된 화려한 연기와 다이내믹한 댄스가 특징. 대표작 <다크니스 품바> <조커스 블루스> <심청 가이즈>, <KICK> 등에서는 한국 특유의 주제를 현대적이고 스피디한 움직임으로 표현하여 호평받고 있다. 2007년 서울무용제에서 안무부문 1등 수상. 활동의 장을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으로 넓히고 있어, 멈추지 않는 기세를 느끼게 하는 젊은 아티스트이다.



캐스트 / 스태프

연출, 안무, 음악 : 김재덕

출연 : 이필승, 이정인, 곽대성, 안남근, 전종원, 신영준, 장원호, 성장용

판소리 : 윤석기

드럼 : 허성은

베이스 : 이 경

기타 : 전채인

키보드 : 임양호

조명 : 박나경

매니지먼트 : 이오공감

주최 : 페스티벌 / 도교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3,000
 학생 ₩2,500
 자유석

초이 카 파이 Choy Ka Fai (싱가폴) “Notion: Dance Fiction”

구성, 연출 : 초이 카 파이 Choy Ka Fai



싱가폴 뿐 아니라, NY, 독일, 아시아 각국,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의 전시 등으로 활약하고 있는 멀티 크리에이터 초이 카 파이.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온 경험도 있는 그의 F/T 참가 작품은 인간의 근육의 움직임을 디지털로 저장하여,

댄스계의 아이콘 피나바우슈와 히지카타 타츠미 등의 안무를 재현하는 데몬스트레이션 퍼포먼스이다. 최첨단의 기술과 신체언어로서의 댄스가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될것인지 주목해보자.

11 월 7 일 (월)	11 월 8 일 (화)
19:30	17:00

일정 : 11 월 7 일(월) - 11 월 8 일(화)

장소 : 씨어터 그린 BOX in BOX THEATER

상연시간 : 45 분

프로필

초이 카 파이 Choy Ka Fai

1979년 싱가포르 출생. 뉴미디어 아티스트, 컨템포러리 퍼포먼스의 연출가. 시각예술, 댄스, 연극의 영역을 횡단하는 많은 작품을 창작. 싱가포르의 국비장학생으로 런던의 로열 컬리지오브아트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07~09년까지 싱가포르의 주요 아트그룹인 <TheatreWorks>의 어소시에이트 예술감독을 맡음. 그리고 아티스트 집단 <Kill Your



Television>의 공동예술감독으로서, 베를린, 후쿠오카, 런던, 에딘버러 등 세계의 주요 예술기관 및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또한 2010년에 싱가포르 영(Young) 아티스트상을 수상함.

캐스트 / 스태프

구성, 연출, 음향, 영상디자인 : 초이 카 파이 Choy Ka Fai

안무, 출연 : Ulrika Kinn Svensson / 특별협력 : STUK (벨기에)

주최 : 페스티벌/도쿄

티켓 예매 ₩2,500 당일권 ₩3,000

 학생 ₩2,500 자유석

/ F/T참가작품

“오시마이노토키(끝장이 날 때)” / 포츠도루

작, 연출 : 미우라 다이스케 三浦大輔

9월 8일 (목) - 9월 25일 (일)

장소 : The Suzunari

뒤틀린 성적 현실과 차별을 품은 인간관계, 치유되지 않는 고독... 현대 일본의 젊은이들의 생태를 리얼하게, 때로는 일부러 더 나뉘 정도로 생생하게 무대에 옮기는 미우라 다이스케가 이끄는 포츠도루. 최근에는 해외의 페스티벌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가 실로 3년반만에 신작을 발표한다. 그곳에 나타나는 “지금”을 앞에 두고,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가전제품처럼 이해할 수 없다”

작, 연출 : 오카다 토시키 岡田利規

9월 24일 (토) - 10월 2일 (일)

장소 : 아울스팟

현대사회의 뒤틀림을 일상적인 신체와 언어로부터 떠올리게 하는 첼피쉬의 오카다 토시키. 아름답고 유연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펼쳐내는 무용가 모리야마 카이지 森山開次. 연극계와 무용계를 선도하는 두 사람이, 그 뒤섞일 수 없는 감성, 서로 다른 시점 자체를 테마로 공동작업을 하였다. 사물과 사물을 접촉하는 미술가 카네우지 텃베이 金氏徹平의 장치 안에서 <이해할 수 없음>을 한층 더 가속시킨다.

“서울시민” 5부작 / 세이넨단

작, 연출 : 히라타 오리자 平田オリザ

10월 29일 (토) - 12월 4일 (일)

장소 : 키치조지 씨어터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서울을 무대로 “시노자키 문방구” 사람들의 생활을 좇는, 히라타오리자의 <서울시민>시리즈. 그 신작을 포함한 5부작을 한꺼번에 상연한다. 격동의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보통의 생활”. 그러나 그것은 지배자의, 이방인의 생활이기도 했다. 30년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에 묻어나는 식민지 지배, 전쟁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모래의 정거장”

작: 오타 쇼고, 연출/구성 : 김아라

11 월 3 일 (목) - 11 월 6 일 (일)

장소 : 세타가야 퍼블릭 씨어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천천히 늘려진 시간 속에 새겨넣는 오타쇼고의 침묵극 <역> 시리즈. 그 풍부한 사색의 시간이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연출가, 김아라에 의해 되살아난다. 금욕적인 오타의 세계관이, 음악과 비주얼 이미지가 넘치는 김아라의 미학과 만날 때, 모래로 뒤덮인 무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현재를 숨쉬게 될까.

“Adischatz/Adieu”

구성, 출연 : 조나탕 캅드비엘 Jonathan Capdevielle

10 월 27 일 (목) - 10 월 29 일 (토)

장소 : 씨어터 카이(Theater X)

2010 년 아비뇽 연극제에서도 독창적인 작품으로 주목받았던 조나탕 캅드비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허구로의 비약을 꿈꾸는 “오토 픽션” 기법을 사용하여, 현실과 공상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소년의 마음 속 궤적을 묘사한다.

“P.P.P.”

구성, 출연 : 피아 메나르 Phia Ménard

11 월 1 일(화) - 11 월 3 일 (목)

장소 : 씨어터 카이(Theater X)

서커스의 저글링을 모티브로 작품에 승화시키는 피아 메나르. 이번에는 얼음 오브제를 저글링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재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F/T 제휴 사업

아시아 무대예술제 <국제공동제작워크샵> 작품

11 월 초순 상연 예정

장소 : 스이텐구(水天宮) 핏토 스튜디오 1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 aims to facilitate understanding in Asia and to promote the creation of new art forms through interaction with artists, as well as deliver superior work and talent to the world. This year artists from Asia will gather in Tokyo for the workshop.

“F/T 스테이션”

9 월 16 (금) - 11/ 13 (일) (예정)

도쿄 각 장소

“F/T 심포지엄”

11/ 9 (수) - 11/ 10 (목)

아울스퓏

“F/T 테아트로테크”

10/ 15 (토) - 11/ 5 (토)

괴테 인스티튜트 도쿄, 프랑스 인스티튜트 도쿄

“F/T 유니버시티”

10/ 17 일(월), 10/ 24 일(월),

10/ 31 일(월), 11/ 14 일(월)

와세다 대학

“F/T 비평 컴피티션”

/ F/T 스테이션

도시로 확장되는 F/T 의 광장

F/T 스테이션은 페스티벌 기간중,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러서 대화할 수 있는 페스티벌의 광장이다. 과거 3회의 F/T에서는 인포메이션, 숭, 카페 등의 기능이 모여 있는 페스티벌 센터로서, 도쿄예술극장 앞에 설치되었다.

올해의 스테이션은 1개 장소에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카페와 레스토랑, 호텔 등 도시의 다양한 장소로 그 기능을 확장시켜, 우리들의 언어와 대화속으로 그 장소를 옮겨 나간다.

“빈 공간”에서의 낭독회

어떤 공간이든 비어만 있다면 이를 빈 무대라고 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이 빈 공간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다른 사람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면 연극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상 더 필요한 것은 없다

피터 브룩, “빈 공간”

그 곳에 사람이 있고 말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3회의 F/T 참가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낭독회를 도내 각 장소에서 릴레이 개최한다. 텍스트와 상연장소의 선정, 연출은 아티스트가 담당. 말의 힘과 우리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광장>을 만들어 낸다.

입장 무료 / 예약 없음

자세한 사항은 F/T 홈페이지에서 공지



© Yohta Kataoka

F/T 레스토랑

도시에 펼쳐지는 F/T 스테이션 “음식”부문. 아시아, 레트로, 이공간... F/T 만의 시각으로 선정한 개성파 레스토랑을 소개한다. 공연 관람의 맛도 한층 깊어질지도...

* 페스티벌 기간중 각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에 맞춰 실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F/T 스테이

F/T 스테이션에 “숙박”부문이 첫 등장. 일본에 있으면서 이국을 만날 수 있는 호텔, 특수한 커뮤니티에만 공개된 숙박장소 등, 도시의 다양한 현실을 체험가능한 역사이팅한 체험의 문이 열린다.

* 페스티벌 기간중 각 시설의 영업시간에 맞춰 실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F/T 살롱

F/T 에 참가중인 아티스트, 관객, 비평가, 해외게스트, 스태프 등이 자유롭게 모여,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 <F/T 살롱>. 올해에는 특별히,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모인 비평가/저널리스트가 호스트를 맡는 토크이벤트가 분위기를 한층

F/T 인포메이션

F/T11 니시스가모 아트팩토리에 아티스트와 작품에 대한 정보의 안내, 관련 상품의 판매를 실시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설치될 예정. 그 외 이케부쿠로 역 앞의 몇 군데의 장소에도 F/T 의 창구가 등장한다.

/ F/T 심포지엄

우리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 연극의 상상력을 확인하는 대화의 장

제일선의 실천가들과 이론가들을 맞이하여, 지진 이후 F/T11에서 제작 발표된 작품군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연극/예술의 실천과 사회와의 접점을 확인하는 심포지엄. 현장과 사상철학의 양쪽의 입장에서부터 던져지는 과제와 논의를 통해, 어떠한 연극의 미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테마 1 : 3.11이후의 예술활동과 그 공공성

예술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과, “거대한 이야기”의 출현 앞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3.11이 야기한 일상의 단절, 사회의 균열과 제도적인 한계 앞에서, 예술표현과 언어활동이 이루어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 그리고 언어의 힘, 연극의 힘은? 지진 이후 창작의 현장과 공공정책을 횡단하면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테마 2 : 아트 / 저널리즘 / 액티비즘의 신지평

녹색당의 창설자이기도 한 요셉 보이스가 사회운동을 “사회조각”이라는 예술로 칭한지 40년이 지났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혁명의 파도, 그리고 현실이 픽션을 뛰어넘은 이 위기 앞에서, 아트 / 저널리즘 / 액티비즘의 경계는 사라지고, 현실을 변혁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선구자들의 실천으로부터 다가올 표현활동과 사회운동의 신지평을 모색한다.

테마 3 : 일본·현대·아트 : “끝나지 않는 일상”의 단절로부터

1923년의 관동대지진, 45년의 종전, 95년의 한신대지진과 옴진리교 사건, 2001년의 9.11, 그리고 2012년의 3.11. “끝나지 않는 일상”이 단절되었을 때, 동시대 예술은 무엇을 표현하였을까? 종전 후의 문학과 연극, 95년 이후의 서브컬처와 아트, 그리고 3.11이후의 표현을 비교하면서, 일본문화에 새겨진 상흔을 검증하고, 그곳에서 발생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과 한계를 찾아 본다.

테마 4 : 아시아의 동시대란 무엇인가?

사람과 정보의 이동이 가속도를 더하는 아시아 지역과 일본. 이민자가 확대되고, “내부의 타자”로서의 아시아인 커뮤니티와 마주하기를 요구받는 일본사회. 한편 아시아 전역에 걸쳐 문화상품을 매개로 연결되는 젊은 세대의 리얼리티는 어떠한 전개를 맞이하게 될까? 그 때 연극은? 공유가능한 창조와 비평의 플랫폼 창출을 위해, 아시아 동시대의 문제의식을 들여다 본다.

일정 :

테마 1: 11/ 9 (수) 16:00 - 18:00

테마 2: 11/ 9 (수) 19:00 - 21:00

테마 3: 11/ 10 (목) 16:00 - 18:00

테마 4: 11/ 10 (목) 19:00 - 21:00

공연장 : 아울스팟

티켓: ¥1,000



F/T10 "F/T Symposium" © Yohta Kataoka

/ F/T 테아트로테크

세계의 연극사에 남아 있는 걸작과 아티스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여, 역사적인 문맥으로부터 연극의 실재를 돌아보는 F/T 테아트로테크. 이번에는, 연극의 개념을 확장하는 독일 연극의 최선단과, 20세기 연극사의 원류를 낳은 두 페스티벌에 초점을 맞춘다.

프로그램 1. 망상의 사회적 맥락이여,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 르네 플레쉬

독일 / 2010 / 90분 / 독일어 상영, 일본어 자막

2010년에 초연한 이후,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작품. 폴크스뷰네 메인 극장의 거대한 공간을, 배우 파비안 힌리히스는 팬티 한벌로 도전한다. 대사와 노래, 춤을 섞은 퍼포먼스는, 극장을 웃음으로 채우면서 플레쉬만의 예리한 인간론, 무대론, 사회론을 분명히 한다

일시 : 9월 13일(화) 19:00

장소 : 괴테 인스티튜트 도쿄

티켓 : ¥500

프로그램 2. 외국인들은 나가라! / 크리스토프 슐링겐지프 / 폴 포이트

독일 / 2002 / 칼라 / 90 분 / 독일어 상영, 일본어 자막

작년에 49 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그 재능과 장난끼로 연극계를 뒤흔들어왔던 슐링겐지프. 그의 생애에서 가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 주일의 프로젝트를 촬영한 다큐멘터리. 빈 가극장 앞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 12 명의 이민자를 살게하고, 관찰하고 단죄하는 연극은, 빈에 소동을 일으키는데...

일시 : 11/ 1 일(화) 19:00

장소 : 괴테 인스티튜트 도쿄

해설 : 한스-티스 레만

티켓 : ¥500

프로그램 1,2 주최 : 페스티벌/도쿄, 괴테 인스티튜트 도쿄

프로그램 3. 아비뇽 연극제의 60년, 옛 교황청 마당과 전장 /

프랑스 / 2006 / 칼라 / 75 분 / 프랑스어 상영, 일본어 자막

세계적인 연극페스티벌의 60 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다큐멘터리. 역대 디렉터와 단골 아티스트의 인터뷰로부터, 연극의 성지 아비뇽의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창설자 장 빌라르 시절의 희귀 영상은 물론이며, 피나바우슈, 태양극단, 피터 브룩 등 20 세기 연극의 혁명가들의 무대영상도 볼거리.

일시 : 10/ 15 (토) 17:00; 11/ 5 (토) 19:00

장소 : 프랑스 인스티튜트 도쿄

해설 : 소피 루카체프스키 Sophie Loucachevsky (11/ 5)

티켓 : ¥500

프로그램 4. 제 1 회 토가 페스티벌 리포트

일본 / 1982 / 칼라 / 50 분 / 일본어 상영

일본 최초의 국제연극제, 82 년 토가 페스티벌의 기록. 연극연구자인 타카하시 야스나리 高橋康也가 리포터를 맡아, 로버트 월슨, 타데우스 칸토르, 메레디스 몽크, 슌즈키 타다시, 테라야마 슈지, 오타 쇼고 등의 인터뷰를 감행. 지금은 전설이 된 연극제의 모습이, 당시의 온도 그대로 전해진다.

일시 : 10/ 15 (토) 18:30; 11/ 5 (토) 17:00

공연장 : 프랑스 인스티튜트

해설 : 우치노 타다시 (10/ 15), 센다 아키히코 扇田昭彦 (11/ 5)

티켓 : ¥500

프로그램 3, 4 주최 : 페스티벌/도쿄, 프랑스 인스티튜트 도쿄

/ F/T 유니버시티

일본을 방문하는 세계적 아티스트를 강사로 초빙하여, 창작의 원점이 되는 사상, 문제의식, 기법에 대해 듣는 특별강의 시리즈

F/T 유니버시티 Vol. 7 제롬 벨 Jérôme Bel

일시 : 11/ 14 일(월) 18:00-21:00

장소 : 와세다 대학 26호관(오쿠마 타워) 302 회의실 (예정)

사회 : 오치 우마 越智雄磨 (와세다대학 박사과정)

티켓 : 무료(온라인 예약), 정원 선착순 50명

프랑스어 강의, 일본어 순차통역

F/T 유니버시티 특별편 한스-티스 레만 연속 강의

일시 : 10/ 17 일(월), 10/ 24 일(월), 10/ 31 일(월) 15:00-17:00

장소 : 와세다 대학 26호관(오쿠마 타워) 302 회의실 (예정)

티켓 : 무료(온라인 예약), 정원 선착순 50명

영어강의, 통역 없음

주최 : 와세다 대학 / 페스티벌 도쿄

/ F/T 비평 컴피디션

개인적인 관극 체험을 작품과 사회를 연결하는 비평의 언어로! F/T 작품에 대한 3000~5000 자 정도의 비평을 공모하여, 웹상에 게재하고, 그 중에 우수비평을 선정하여, 프로 비평가로의 첫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 티켓 정보

가격 ¥2,200-5,000
당일권 티켓 +¥500
학생 ¥3,000 고등학생 이하 ¥1,000
F/T 패스 ¥24,000 (모든 작품)
야외 공연 패스 ¥12,000 (3 공연) (각 ¥4,000)
패키지 티켓 ¥16,000 (5 공연) (각 공연 ¥3,200)
공모 프로그램 패스 ¥10,000 (5 공연) (각 ¥2,000)
단체 티켓, 페어 티켓, 학생 티켓
티켓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페스티벌 팸플릿과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8 월 28 일 (일) 오전 10 시부터 티켓 판매 개시

구매 F/T 티켓 센터 (전화예약)
TEL: 03-5961-5209 (12:00-19:00)
축재기간 중 무휴
8 월 29 일 - 9 월 15 일: 수요일과 일요일 휴무
(단, 8 월 28 일[일]은 10 시부터 오픈)

온라인 예약

PC: <http://festival-tokyo.jp/>

Mobile: <http://festival-tokyo.jp/m/>

24 시간 이용가능. 사전 등록 필요(무료)

Ticket Pia 0570-02-9999 <http://pia.jp/t/>

e-plus <http://eplus.jp/ft11/> (PC, mobile)